

# 복지요결 낙수

복지요결의 뒷이야기입니다.

요결에 이르는 과정의 생각도 있고 요결에서 이어지는 생각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29일

1. 요결의 뜻과 출처 .....	5
2. 복지요결 권장 독법 .....	6
3. 전공과 용어 .....	7
4. 연구 방법 .....	8
5. 약자도 살 만한 사회 .....	9
6. 인공복지와 미래 사회 .....	10
7. 약자와 사회사업가 .....	11
8. 약자라는 용어의 불편함 .....	12
9. 합성명사를 정의하는 방법 .....	13
10. 일반인 관점 사회사업 .....	14
11. 전공자 관점 사회사업 .....	15
12. 돕는 일? .....	16
13. 사회사업이 뭐냐고요? .....	17
14. 관념상의 용어와 실재하는 당사자 .....	18
15. 대상자, 클라이언트 .....	19
16.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	20
17. 자원봉사와 사회사업 .....	21
18. 생태복지 .....	22
19. 사회사업 가치의 근거 .....	23
20. 주체성과 공동체성 .....	24
21. 사회사업 윤리의 본질 .....	27
22. 사회사업가의 윤리 .....	28
23. 함께 사는 사회 .....	29
24. 문제와 사회사업 이상 .....	30
25. 사회사업 동기 .....	31
26. 당량거칠 갈아 보일지라도 .....	32

27. 사회사업 이상의 수준 .....	33
28. 사회사업의 발전 .....	34
29. 우물과 시내 .....	35
30. 보편적 복지와 보편화 철학 .....	36
31. 노말라이제이션 .....	37
32. 보이지 않게 한다고 소극적 표현으로 쓴 까닭 .....	38
33. Let it be .....	39
34. 지역사회 중심 .....	40
35. 생태와 안전장치 .....	41
36. 이념과 관점 .....	42
37. 사전의 강점 개념과 사회사업 .....	44
38. 강점과 자원 .....	45
39. 탄력성과 회복 탄력성 .....	46
40. 강점 관점, 강점 중심? .....	47
41. 임파워먼트 .....	49
42. 사이렌과 오르페우스 .....	50
43. 바위와 강물 .....	51
44. I have a Dream .....	52
45.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 .....	54
46. 당사자 쪽 관계 .....	56
47.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58
48. 사회사업가 쪽 관계 .....	59
49. 관계의 양면 .....	60
50. 방법은 간략하게 .....	61
51. 인사와 감사 .....	62
52. 사회사업 이렇게 하면 .....	63
53. 교류 분석 .....	64
54. 공감과 동정 .....	65
55. 약자일수록 사회사업가의 영향이 큼니다. ....	68
56. 복지요결 요약 : 각 주제들 간의 연결 관계 .....	69
57. 사회사업가의 재주와 자원 .....	70
58. 찌져 가는 심지, 상한 갈대 .....	71
59. 주는 노릇 .....	72
60.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	74
61. 사회사업가의 별칭 .....	75
62. 복지관이 시설? 전달기구? .....	76

63. 지역사회 중심 복지관과 시설 중심 복지관 .....	77
64. 개별사회사업 .....	79
65. 주민조직의 독립? .....	82
66. 지역 주민이어야 하는가? .....	84
67. 평생학습(사회교육) 프로그램 .....	86
68. 반찬 사회사업, 김장 사회사업 .....	88
69. 경로식당 .....	91
70. 반찬 배달 사업 .....	92
71. 김장 사업 .....	94
72. 장애인을 지원하는 일 .....	98
73.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원칙 .....	103
74.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사례 .....	106
75.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	113
76. 학습지도 .....	115
77. 문제를 따돌리기 .....	116
78. 지역아동센터 후원 봉사 .....	118
79. 아이들이 사는 마을 .....	119
80. 취약아동센터? .....	120
81. 복지관과 시설 .....	122
82. 시설 정체성을 뒤집어 보기 .....	123
83. 시설 관련 용어 .....	124
84. 공동체 시설 .....	128
85. 가구 사회사업가 .....	129
86. 가구 사회사업가가 입주자에게 집중하도록 .....	130
87. 조력자 .....	131
88. 집단 활동 프로그램 .....	132
89. 주거 지원의 필요성 .....	133
90. 가변 주거와 고정 주거 .....	134
91. 원내 주택과 원외 주택 .....	135
92. 주거 시설의 관리 .....	136
93. 후원 봉사 .....	137
94. 연명과 삶 .....	138
95. SRV와 노말라이제이션 .....	139
96. 복장 .....	141
97. 의료케어에서 생활케어로! .....	142
98. 기저귀 .....	145

99. 사례관리 사업의 용어, 쉬운 말 찾기 .....	147
100. 사례관리 사업의 배경 .....	148
101. 사례관리 사업 수행 기관 .....	149
102. 사례? .....	150
103. 사례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 조사 .....	152
104. 타 기관이나 제삼자가 대상자를 의뢰할 때 .....	154
105. 사례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	155
106. 사례회의 .....	156
107. 사례회의에서 도지곤 하는 고질병 .....	157
108. 조사 사회사업 .....	158
109. 욕구 조사 .....	161
110. 기획서 항목 .....	163
111. 기획서 다듬기 .....	164
112. 기획서 예시 : 복지 서비스 정보화 사업 .....	166
113. 공모사업과 지원신청 .....	167
114.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고칠 점 .....	169
115. 사업별 워크숍 .....	170
116. 전임자와 후임자 .....	171
117. 기존 기관이나 부서에 책임자로 들어간다면 .....	172
118. 어디서부터? .....	173
119. 돕는 방법을 바꾸려 할 때 .....	174
120. 조건부적 사고와 방법적론 사고 .....	175
121. 원칙과 변통 .....	176
122. 희망 .....	178
123. 고백 .....	179

## 1. 요결의 뜻과 출처

요결 : 가장 중요한 방법이나 긴요한 뜻, 또는 그것을 쓴 책 (국어사전)  
복지요결은 사회사업의 핵심 원리와 방법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사회사업 원론입니다.

울곡 이이 선생께서 초학자들을 위해 학문을 바르게 잘하는 길을 밝힌 책 ‘격몽요결’에서 따왔습니다.

## 2. 복지요결 권장 독법

### 1) 읽을 때

- ①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을 감안하고 읽습니다.
- ② 사회사업 실재를 연상하며 찬찬히 읽습니다.
- ③ 문맥을 헤아려 의미 단위로 끊어 읽고 핵심어를 강하게 읽습니다.
- ④ 문장 끝에서는 문장을 소화하고 문단 끝에서는 문단을 소화합니다.
- ⑤ 물음표에서는 답을 생각해 봅니다.
- ⑥ 제목을 질문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고, 본문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 ⑦ 미주와 참조는 특별히 궁금하지 않으면 읽지 않습니다.

### 2) 나눌 때

두어 명씩 짝지어 또는 4~7명씩 모여서 나눕니다.

- ① 나누고 싶은 대목을 한두 군데 고르고, 각각 그와 관련하여 나눌 이야기의 실마리가 되는 낱말 한두 개씩 써 놓습니다.
- ② 각자 고른 대목을 찾아 낭독하고 써 놓은 낱말을 실마리로 그 대목에서 일어난 생각, 관련 경험이나 지식, 성찰과 적용 따위를 나눕니다. 자기만의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과 다르든 같은 자기 배움을 나누는 겁니다.
- ③ 동료가 말할 때 잘 듣고 잘 반응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배움이 뚜렷해지거나 깊어지고 생각과 표현이 다듬어지곤 합니다.

### 3. 전공과 용어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가치, 철학, 복지, 사회복지, 사회사업, 생태, 강점, 임파워먼트, 장애, 인권, 지역사회조직, 사례관리...

개념을 온전한 문장으로 똑떨어지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개념이 없거나 모호해도 의사소통이나 실무에 별 지장이 없는 것 같고 개념과 실무가 따로 논다고 무슨 대수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핵심 용어만큼은 개념을 뚜렷하게 정리함이 좋겠습니다.

전공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사업을 전공했는데 사회사업 핵심 용어조차 설명할 수 없다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 4. 연구 방법

### 1) 다중 원천

- ① 목상으로 영감을 구합니다.
- ② 인문 고전에서 사람과 사회에 관한 근본 담론을 살핍니다.
- ③ 사회사업 문헌을 참고합니다.
- ④ 경험에서 배우고 경험에 비추어 따져 봅니다.
- ⑤ 이성으로써 궁리하고 따져 봅니다.

### 2) 연역법

사람다움 사회다움으로부터 개별 주제를 끌어냅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에서 가치를 찾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가리키는 이상과 철학을 세우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살리는 주안점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 5. 약자도 살 만한 사회

### 1)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은 사회사업으로써 어찌할 수 없거나 어찌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사회사업으로써 어찌해 볼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약자를 도울 때 되도록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돕다 보면 사회가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거나 수정 보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약자도 살 만한 사회, 약자도 살 만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2024년 6월 복지요결에서 뺀 이유

① 약자도 살 만한 사회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기초생활 보장’을 사회사업으로써 어찌할 수 없거나 어찌하기 어렵습니다.

② 약자도 살 만하다, 이는 소극적 차원의 속성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③ 약자도 살 만하다, 약자도 살 만한 사회, 이런 표현을 사회사업 이론에 정착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비판에 취약한 고리가 될 수 있겠다 싶고, 이 표현을 문제 삼을 때 대답하기가 좀 곤색하겠다 싶습니다.

④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상 내지 속성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샅터에서 약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자와 더불어 산다고 할 수 있겠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6. 인공복지와 미래 사회

인공복지로 이웃 인정 대신하는 사회, 온갖 복지가 있는데 이웃이 없고 인정이 없는 사회, 인간적 사람살이를 잃어버린 사회...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될까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사람 사는 것 같았던 게 언제 적입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복지 뒤편으로 이웃 인정 자꾸 멀어져 갑니다.

다만 아직은 이웃 인정으로써 사회사업할 만합니다. 특히 도시는 사람이 많고 이웃 인정에 대한 그리움이나 목마름이 있어 이웃 인정으로써 사회사업하기 좋습니다.

## 7. 약자와 사회사업가

약자와 가까워야 사회사업 축축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약자와 멀어지면 헛헛합니다. 사회사업가는 그렇습니다.

승진할수록 약자와 멀어지기 쉽습니다.

어떡하든 승진을 피하고 부득이 승진하더라도 직접 돕는 일을 아주 그만두지는 않음이 좋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얼마쯤 봉사하고 일선으로 돌아감이 좋습니다. 참조 : 복지경영 '복지기관의 조직'

팀장·과장, 부장·국장, 기관장 따위의 자리나 직함이, 약자에게서 멀어지는 계기나 구실이 되지 않도록, 사회사업가라는 정체성을 흐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할 일입니다.

사회사업가에게 일선 현장보다 좋은 자리가 어디이며 '사회사업가'보다 더 가슴 뛰는 직함이 무엇일까요?

은퇴할 때 '사회사업가 아무개 선생님'으로 불리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중간 관리자나 기관장이 되었더라도 얼마간이나마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회사업가'로 은퇴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8. 약자라는 용어의 불편함

약자는 사회사업의 주 대상 또는 어떤 속성의 사람을 총칭하는 집합 명사로서 관념상의 용어입니다. 실재하는 특정 당사자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를 약자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할 뿐이라고, 어떤 상황에서 약할 뿐이라고, 이렇게 그 사회, 그 면, 그 상황에 한정하여 약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꺼림직합니다. 이 용어를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석연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 9. 합성명사를 정의하는 방법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명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합니다.

### 1) 대등 합성어

앞 명사와 뒤 명사를 각각 풀이하고 조사 ‘와’나 ‘과’로 연결합니다. 앞 뒤의 명사를 그냥 그대로 조사 ‘와’나 ‘과’로 연결합니다.

예컨대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주야는 낮과 밤으로 정의합니다.

### 2) 융합 합성어

앞 명사와 뒤 명사의 원래 의미를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로 정의합니다.

예컨대 주야나 밤낮은 ‘계속이나 항상’으로 춘추는 나이로, 갈등은 모순과 대립 따위로 정의합니다.

### 3) 수식 합성어, 종속 합성어

앞 명사는 수식어이고 뒤 명사가 본체입니다. 앞 명사에 조사 접미사 등의 살을 붙여 관형어를 만든 다음, 그 관형어의 뜻을 구체화하여 그로써 뒤 명사의 속성을 규정하거나 의미를 한정합니다.

예컨대 인권은 ‘사람’에 살을 붙여서 예컨대 ‘사람다운 권리’ 또는 ‘사람답게 살 권리’ 따위로 정의하고 사람답다 할 속성을 밝혀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사회사업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접미사 ‘적’을 붙여서 ‘사회적 사업’이라고 하고 ‘사회적’의 뜻을 풀어 사업을 수식합니다.

사회사업은 사회적 사업입니다. → 사회사업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고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 사회사업은 사회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고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 10. 일반인 관점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참조 : 정보원 공통게시판 [2103](#)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김종원

어려운 사람을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잘 통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사업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사회사업이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흔히 사회사업을 이렇게 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는 사회사업가에게 정명 곧 변경하지 못할 사명, 정해진 운명 같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11. 전공자 관점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로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곳이든 사회사업 현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사회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부 사회복지사는 어떨까요?

동네의 이런저런 공간과 사람들이, 동네에서 보고 듣는 일들이, 사회사업 의미를 띠게 되지 않을까요?

동네에 두루 다니며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고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게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주부 사회복지사 한 명만 있어도 그 동네는 정붙이고 살 만하지 않을까요?

카페 책방 마을도서관 꽃집 미용실 사진관 사회복지사는 어떨까요?

이런 사회사업을 자비량 사회사업이라고 합니다. 생활비와 활동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사회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참조 : [복지경영](#) '벤처 사회복지사 ~ 자비량 사회사업가'

## 12. 돕는 일?

돕는다는 말이 불편하다면 다음과 같이 바꾸어 이야기해 봅니다.

### 1) 주선하는|거드는 일

마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주선하는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것을 거드는 일입니다.

주선하다 :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쓰다.

거들다 : 남이 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돕다. 국어사전

### 2) 함께하는 일

마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데 함께하는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 13. 사회사업이 뭐냐고요?

1) 불쑥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던지는 질문에 누가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시험하듯 묻거나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대답하고 싶을까요?

대답한다 해도 어찌 일정한 답이 있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누구이며 왜 묻는지, 어떤 수준으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인지, 헤아려서 각각 달리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예비 사회사업가라면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현장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현장의 실무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사업 개념이 없거나 모호하면 사회사업한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회사업가에게 이렇게 민망한 일이 또 있을까요?

2) 사회사업은 뜻있는 사람의 선행이고 보통 사람의 평범한 도움 나눔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돕는 일이 사회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로 정의한다면 사회사업은 참으로 불가지 불가해한 일일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 곳을 모르는데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일반 사회사업 기관에서 사회사업가가 할 수 있는 일로써,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으로써, 어찌해 볼 수 있는 개념을 이야기함이 좋습니다. 실무에 맞게,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구체적 언어로써 정의함이 좋습니다.

## 14. 관념상의 용어와 실재하는 당사자

### 1) 지칭

아동 청소년 노인/노년, 남자 여자,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사회적 약자, 노숙인 수급자 장애인, 입주자, 지역 주민...

모두 어떤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관념상의 용어이고 집합 명사인데, 실재하는 특정 당사자를 이로써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용어는 이렇게 쓰기 조심스럽습니다. 문제를 암시하거나 나쁜 효과가 있는 용어 또는 그런 속성으로써 사람을 한정 수식하는 용어, 예컨대 노숙인 장애인이 그렇습니다.

실재하는 특정 당사자를 이런 용어로써 지칭하면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인 양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 같고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현재 이러저러하다고 서술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홍길동 씨는 노숙인이다. 홍길동은 지적 장애인이다, 자폐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홍길동 씨는 노숙하고 있다. 홍길동은 지적 장애가 있다. 지적 기능이 여느 아이와 다르다. 자폐성 장애가 있다. 자폐성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 2) 호칭

당사자는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사람’을 총칭하는 관념상의 용어입니다.

실재하는 특정 당사자에게 ‘아무개 당사자 님~’ 이렇게 부르는 건 좀 어색합니다.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당사자와 의논하되 되도록 지역사회 의 평범한 호칭 문화를 따르자고 합니다. (씨, 님, 아저씨, 아주머니, 군, 양 따위) 합의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원하는 호칭을 씁니다.

## 15. 대상자, 클라이언트

### 1) 대상자

대상자는 어떤 사업으로 도울 사람 또는 돕는 사람입니다.

대상자라고 하면,

① 대상자 본인이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할 공산이 커집니다.

②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대상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할 공산이 커집니다.

이용자라고 해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대상자나 이용자라는 용어는 꼭 써야 할 자리를 가려서 신중히 씁니다.

### 2)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원래 자발적 주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일을 맡긴 사람, 일종의 ‘갑’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사회사업으로 도울 사람이나 돕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없습니다.

## 16.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1) 사회사업은 협의의 개념이고 사회복지의 광의의 개념이다?

이는 음식을 나누게 주선하는 일은 협의의 개념이고 음식은 광의의 개념이라고 함과 같습니다.

사회사업은 미시적이고 사회복지의 거시적이다?

이는 식사를 지원하는 일은 미시적이고 식사나 배부름은 거시적이라고 함과 같습니다.

2) 사업은 5형식 문장의 불완전 타동사에 해당하고, 복지는 목적보어 (또는 그 안의 목적어나 보어)에 해당합니다.

복지를 이루어 주는 방식이라면, 사업은 3형식 문장의 타동사나 4형식 문장의 수여동사에 해당하고 복지는 그 (직접)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3) 사회복지에 사회사업가가 경찰이나 청소부나 농부나 시인보다 더 기여한다 할 수 있을까요? 커피숍이나 호프집보다 복지기관이 더 기여한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부당합니다. 저마다 그 하는 일로써 조금씩 기여하여 사회복지의 이룩하는 겁니다.

어느 직업이나 대개 사회복지나 누군가의 복지에 기여합니다. 다만 좋은 직업은 남을 살림으로써 자기가 살고 남을 살리면서 자기도 사는 '살림살이'형 직업입니다. 사회사업은 그런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4) 사회복지한다? 사전에 이런 동사가 없지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로 약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다'와 '사회복지하다'를 동의어처럼 통용한다는 말입니다.

## 17. 자원봉사와 사회사업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돕는 일이라는 뜻이지만 보통은 ‘자원’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를 받지 않고 돕는 일을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보수의 유무로써 사회사업과 자원봉사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돕는 행위 자체의 차이가 아닙니다. 보수의 유무로써 돕는 행위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한이나 책임, 양성 과정이나 자격 제도, 이런 것도 돕는 행위 자체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기술, 분야나 소재, 돕는 시간이나 일의 양, 이런 것으로도 사회사업과 자원봉사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본질적 차이는 돕는 행위의 방법과 목표에 있습니다.

### 1) 방법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 2) 목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일반 수단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합니다.

사회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원봉사와 본질상 다르다 할 게 무엇일까요? 사회사업은 사회사업다워야 합니다.

## 18. 생태복지

1) 생태복지는 생태적 복지 또는 생태적 복지사업을 가리킵니다.

자연생태와 조화롭거나 자연생태에 덜 해로운 복지. 자연생태를 좋게 하거나 자연생태를 활용하는 복지, 또는 그런 복지사업입니다.

① 자원을 덜 쓰고 쓰레기를 줄입니다.

②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물품을 사용합니다.

③ 벼룩시장, 재활용 강좌, 텃밭 동호회, 숲 가꾸기, 새집 달아 주기 따위를 사업으로 만듭니다.

④ 생태 탐방, 숲에서 놀기, 둘레길 걷기, 등산, 주말 농장, 농촌 탐방, 자연 속에서의 휴식 요양 따위를 사업으로 만듭니다.

2) 사회사업은 생태적으로 복지를 이루려고 노력하되, 자연생태보다 사회생태를 우선합니다.

① 자연생태에 좋더라도 사회생태를 해칠 위험이 있다면 그런 사업 그런 방식은 삼갑니다. 부득이하면 대책을 마련하여 신중히 합니다.

참조 : 복지**안정** 선택과 집중 편 ‘자연생태와 사회생태’

② 지역사회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사회생태를 살리되 자연생태에도 좋게 하는 겁니다.

## 19. 사회사업 가치의 근거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까닭은

1)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하며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으로부터 사회사업 가치를 끌어내는 겁니다.

2)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명실상부하게 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삶 그 실질이 자주성이고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실질이 공생성입니다. 자주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고 공생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사람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 가치도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 20. 주체성과 공동체성

주체성은 자주성과 통용하고 공동체성은 공생성과 통용하곤 합니다. 다만 어울리는 짝이 다르고 아우르는 범위가 다릅니다. 주체성과 공동체성은 사회사업 용어로 쓰기에 조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 1) 어울리는 짝

자주성은 공생성과 짝을 이루고 주체성은 공동체성과 짝을 이룹니다. 동사 ‘자주하다’와 ‘공생하다’에서 자주성과 공생성이 나오고 명사 ‘주체’와 ‘공동체’에서 주체성과 공동체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당사자의 주체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은 짝이 맞지 않습니다.

### 2) 아우르는 범위

① 사전에서 주체는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 또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합니다.

‘행동의 주가 되는 것’에서 ‘되다’는 ‘~으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다’라는 말입니다. 주체는 행위성이 없는 명사입니다.

a.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어떤 행동을 하기 어려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 사안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회사업은 당사자가 자주하게 돕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사업의 실재를 아우르는 데는 주체성보다 자주성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b. 주체는 실제로 주로서 행동하거나 행동의 주가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상 주라는 말이지 어떤 작용이나 행동에 의해 주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체는 ‘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주체는 주가 됨



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자주는 실제로 주로서 행동하거나 행동의 주가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상적 속성까지 아우르는 데는 주체성보다 자주성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c. 당사자가 자기 복지의 주 또는 자기 복지를 이루는 행동의 주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당사자를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전에서 공동체는 ‘집단’ 또는 ‘조직체’라고 합니다.

a. 당사자와 둘레 사람의 조합을 다 공동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사업은 공동체가 아니어도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사업의 실재를 아우르는 데는 공동체성보다 공생성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b. 공동체는 실제로 공동체로 사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공생은 실제로 그렇게 사는 현상을 포함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상적 속성까지 아우르는 데는 공동체성보다 공생성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①+② 이따라서 ‘당사자의 주체성과 지역사회 공동체성’이라고 하기보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이라고 합니다.

### 3) 조심스러운 점

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활동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에서 주체로 나서기 어려운 사람, 일반 참여자나 대상자의 입장과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주체가 되어야 한다거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까 하여 주체를 운운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사회사업 가치를 이야기하는 데 주체성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꺼려집니다.

② 공동체는 양면이 있습니다. 개성을 제약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

나 외인을 배제 차별하는 따위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 가치를 이야기하는 데 공동체성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꺼려집니다.

공동체 경험이 없다는 사람, 공동체에서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사람, 공동체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늘어간다는 점도 걸립니다.

4) 주체성과 공동체성이라는 말이 대중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사업 가치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이래저래 꺼림칙합니다.

주체와 공동체, 일반적으로는 좋은 의미로 흔히 쓰는 말이지만 사회사업가로서는 자리를 가려서 신중히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 21. 사회사업 윤리의 본질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도와야, 적어도 해치지 않는아야,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사업 윤리의 ‘현상’입니다.

본질은, 이렇게 돕는 까닭에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답고 사람 사는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사람다움 곧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도우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윤리의 본질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 행위가 윤리적인지 성찰하는 물음은 곧 ‘당사자를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도우려 하는가?’ 함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2. 사회사업가의 윤리

사회사업가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주로 실천 윤리를 가리키고 넓게는 직업윤리와 일반 윤리까지 아우릅니다.

### 1) 실천 윤리

돕는 행위에서의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사회사업 가치입니다.

### 2) 직업윤리

직업윤리는 직업이나 직장에서의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나 기관의 윤리 규정입니다.

### 3) 일반 윤리

일반 윤리는 직업이나 직장 밖에서의 사회 윤리 또는 개인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사회의 통념이나 법, 개인의 양심이나 신앙입니다.

직업윤리와 일반 윤리는 사회사업론으로 실용성과 정합성이 있게 구체화하기 어렵고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이기도 하여 복지요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23. 함께 사는 사회

신체 약자나 지적 약자에게는 이런 이상이 얼마쯤 실현되어 가고 있는데 정신 질환이나 치매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정신 질환이나 치매증이 있으면 지역사회로부터 분리 배제되곤 합니다. 함께 사는 법을 몰라서, 함께 살게 지원하지 않아서, 지역사회가 그런 사람을 분리하거나 배제합니다. 시설의 사회사업가마저 그런 사람을 전용 수단으로써 보호하며 그저 연명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죄송할 뿐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곤 합니다. 정신 질환과 치매 발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누구라도 걸릴 수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정신 질환이나 치매증이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일반 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 정신 질환이나 치매증이 있는 사람을 분리하거나 배제 차별하지 않는 사회, 함께 사는 사회...

이런 사회를 꿈꿉니다. 갈수록 절실해집니다.

## 24. 문제와 사회사업 이상

1) 문제를 없애는 일이 꼭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당사자의 삶도 지역사회 사람살이도 역경과 순경이 씨줄 날줄처럼 엮여 이루는 생활의 총체인데 한쪽을 없애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2) 문제를 없앨 자신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의 한 가지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3) 문제 해결이 당사자에게는 절실한 일이고 단위 사업에는 중요한 목표일 수 있지만, 사회사업 이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낮아 보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가로서 꿈꾸는 세상은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살 만한 곳,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정 붙이고 살 만한 곳, 사람 냄새 나는 곳, 인간적인 세상입니다.

## 25. 사회사업 동기

1) 사회사업하려는 적극적 이유로서 사회사업 동기는 사회사업의 가치에 있습니다. 사회사업에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속성이 있으므로 직업으로 택하여 마음과 힘과 시간을 쓰는 겁니다.

예컨대 월급을 받을 수 있다거나, 사람들이 좋게 봐준다거나... 이런 점이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사회사업할 수도 있고, 신을 기쁘시게 한다거나,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준다거나... 이런 점이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사회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에 좋게 여기는 가치를 좇아 행할 따름입니다.

2) 사회사업도 결국 자기만족을 위한 일 아니냐고요?

궁극적으로 자기만족에 닿지 않는 행위가 있을까요?

가령, 물에 빠진 이웃집 아이를 건져 주는 행위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건져 주지 않아서 오는 죄책감·원망·비난이 두려워서도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아이를 건져 줌으로써 결국 자기만족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자기만족을 위해서 돕는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적 목적이 있을지라도 탐욕이 아니라면 너무 각박하게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사업은 남을 살림으로써 살고 남을 살리면서 사는 일입니다.

사회사업가는 남을 이롭게 하려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에 만족하여 즐겁게 일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회사업가도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 26. 당랑거철 같아 보일지라도

세상은 정의를 버리고 인간성을 삼키며 역행하는 형세입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정의를 붙잡고 비인간화에 맞서야 하지 않을까요?

[당랑거철](#) 같아 보일지라도…

천안문 [탱크맨](#)이 그런 것처럼,  
공상과학영화에서 끝내 인간성을 지켜 내는 저항 세력이 그러하듯,  
세상 어딘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인간 의식을 깨우고 희망과 용기를 주어 끝내 인간 세상을 지켜 낼 겁니다.

참조 : 복지팡세 ‘사회사업의 가치, 남은 자’ | 복지소학 ‘임종도원’

공상과학영화 : [이퀄리브리엄](#), [이월스](#), [더 기버](#)…



## 27. 사회사업 이상의 수준

1) 사회사업 실무에 비추어 그림직한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을 헤아려 어떤 일로든 얼마쯤 이룰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강약이 어울려 사는 사회’를 사회사업 이상으로 쓰고 싶은데 ‘빈부의 어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2) 하는 일이나 처지와 역량 그 현실이 다 같지는 않으니 다른 사회사업 현실에서도 바라봄직한 수준으로 어지간히 높여 잡습니다.

목표로는 지금 이 현실에서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방향으로는 어느 현실에서나 ‘저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멀게 함과 같습니다.

너무 높으면 지치기 쉽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3)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과 인정이 있는 사회, 사회사업은 이렇게 공생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공생은 평화나 행복의 토대이기도 하니 공생 그 위에 평화나 행복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회사업 이상은 공생까지로 함이 좋겠습니다. 공생 그 이상의 이상, 평화나 행복까지 사회사업 이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 28. 사회사업의 발전

이상은 이루고 또 이루어도 끝이 없으니, 발전을 생각합니다.

소박해짐이 발전이고 평범한 일상에 녹아들이 발전입니다.

뜻은 사람다움의 알맹이이고 인정은 사회다움의 알맹이인데 대개 소박한 데서 뜻이 맑아지고 인정이 자랍니다. 이따라서 소박해짐이 발전이라고 합니다.

가고 또 가서 더할 나위 없는 경지에 이르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평범한 일상으로 꾸준히 이어갈 겁니다. 이따라서 평범한 일상에 녹아들이 발전이라고 합니다.

진미는 물처럼 담박하고 훌륭한 문장은 평범할 뿐이라고 합니다.

## 29. 우물과 시내

우물과 시내는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사람들이 어울리고 정보 지식 지혜를 나누고 상담하고 위로 격려 응원합니다. 쉬거나 놀기도 합니다. 자갈 모래 물고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을 모아서 수도를 통해 급수하면 우물이 마르고 시내가 죽어 갑니다. 그 좋은 기능, 좋은 것이 다 사라집니다.

깨끗한 물 좋은 물 공급한다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나 안심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를 놓아 누구는 생색내고 누구는 돈을 벌지만 누구는 종속됩니다. 낭비와 분쟁을 낳기도 합니다.

이웃과 인정도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나누거나 빌려주거나 함께하거나 도와주며 온갖 복지를 이룹니다.

그런데 복지 저수지에 자원을 모아서 복지 수도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그 좋은 기능이 약해지고 없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복지 수도에 더 자주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복지 수도를 놓아 누구는 생색내고 누구는 돈을 벌지만 누구는 종속됩니다. 욕심 낭비 오용 남용 악용 시기 원망 분노 불신 다툼을 부르기도 합니다.

### 30. 보편적 복지와 보편화 철학

사회정책에서는, 주로 약자에게만 주는 복지를 여느 사람에게도 주거나 애당초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들자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또는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말입니다.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정책운동과 같은 사회행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대하여 돕는 자리에서는, 약자도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그렇게 돕다 보면 지역사회가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바뀌어 갑니다. 일반 수단을 새로 만들 때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거나 기존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보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 1) 보편적 설계 : 애당초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합니다. 사회적 약자도 여느 사람처럼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겁니다.
- 2) 보완책 : 기존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보완합니다. 특수 장치나 소프트웨어 추가, 요금 감면, 비용 보조, 보조 기기나 도우미 지원, 우선권 부여, 특례 적용 같은 조치가 보완책에 해당합니다.
- 3) 보편적 서비스 : 애당초 보편적으로 설계하거나 기존 수단을 보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간 : 공원, 도서관, 카페, 식당, 쇼핑몰, 공연장, 박물관...

시설 : 화장실, 지하철, 주방 시설, 목욕 시설...

제도 : 교육 제도, 고용노동 제도, 주거지원 제도, 보건의료 제도...

제품 : 스마트폰, TV, 밥솥, 도서...

서비스 : 의료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인터넷...

조직 : 동호회, 교회, 회사, 주민 모임, 정당, 노동조합...

문화 : 축제, 공연...

### 31. 노말라이제이션

그 사회의 여느 사람과 같거나 비슷하게, 평범하게, 돕자는 겁니다. 보통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말라이제이션 이념이 들어오고 시설에 혁명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의식주와 일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1) 전에는 단체복인 것처럼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후에는 각자 옷을 사 입게 되었습니다.
- 2) 전에는 식당에서 줄을 서서 식판에 배식을 받아 단체로 식사했는데, 후에는 집마다 취사 조리하거나 주방에서 가져다가 먹게 되었습니다.
- 3) 전에는 복도에 방들이 줄지어 있는 기숙사형 주택이었는데, 후에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을 갖춘 집으로 고쳐 짓거나 새로 지었습니다.
- 4) 전에는 거의 24시간 방이나 공동 거실에서 지냈는데, 후에는 아침 먹고 나가서 활동하고 오후에 돌아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32. 보이지 않게 한다고 소극적 표현으로 쓴 까닭

invisible, ubiquitous, fundamental, universal, normal welfare

사회사업 철학을 1990년대에는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한국어로 바꾼 후에도 오랫동안 invisible welfare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로 설명해 오다 보니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 표현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하자’는 뜻도 작지 않기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 33. Let it be

1) 당사자의 곳에서, 당사자으로써,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① 당사자가 살고 있거나 주로 활동하는 곳에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② 당사자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③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2)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① 제 마당 제 샅터에서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게 합니다.

②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③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사회사업 철학을 종합하면 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복지사 사회 속에 흐르게 되고, 복지 바탕이 살게 됩니다.

Let it be the life of the client, by the client, in the client.

Let it be the life of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in the community.

### 34.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가 문제의 근원이고 복지의 바탕입니다.

지역사회를 놓아두고 복지관에서 복지관의 것으로써 어찌해 보려 함은 무모한 일입니다. 불 위에 섰을 던짐과 같습니다. 잠시 꺼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나 문제를 키웁니다.

이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곧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지역의 이런저런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 속에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로써, 곧 지역사회가 지역의 수단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사회사업가가 복지를 이루어 주거나, 지역의 수단을 대신하여 사회사업가 쪽 수단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루지 않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따로 복지를 이루어 주는 외장형 복지사업보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 내장형 사람살이가 좋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대도시 도매시장에 갔다가 오듯 동네 자원이 복지관에 갔다 오는 식의 후원 봉사보다, 제 마당 제 샅터에서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 직접 주고받는 나눔 도움이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복지를 이루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방식이 잘 맞지 않는 사회사업가, 자신의 지식 기술로써 직접 돕는 편이 최선인 사회사업가도 있을 겁니다.



## 35. 생태와 안전장치

### 1) 생태 체계의 원리

생태 체계의 어느 한 부분에 일어나는 변화는 다른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 전체 생태 체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 생태 체계에 개입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어떤 사업이든 필요성이나 효과나 장점만 내세워 추진할 게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고 다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 2) 사회사업 안전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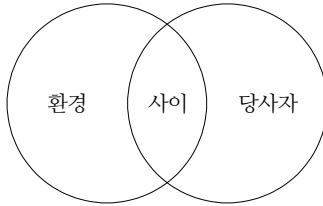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안전장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부작용이 덜하고 수월하고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 3) 사회사업계의 생태, 업계의 생태를 살펴보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복지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봉사단체 공공기관의 사업 생태를 헤아리고 시장 생태를 고려하는 겁니다. 자칫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36. 이념과 관점



#### 1) 우파 : 개인 관점

당사자 쪽 조건에 주목합니다. 당사자를 바꾸려 합니다. 당사자를 치료 교육 후원하여 환경에 적응하게 돕는 겁니다.

의학 간호학 심리학 교육학 쪽 배경의 실천 방식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2) 좌파 : 환경 관점

환경 쪽 조건에 주목합니다.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편의시설 같은 물리적 조건과 제도 인식 문화 같은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여 당사자 쪽에 적응하게 돕는 겁니다.

사회학 정치학 인권운동 시민운동 쪽 배경의 실천 방식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3) 중도 : 생태 관점

당사자와 환경 양쪽을 헤아려 그 사이를 좋게 합니다. 한쪽의 적응보다 상호 적응을 돕습니다. 당사자를 직접 도울 뿐 아니라 환경을 바꾸기도 하여 이쪽과 저쪽이 잘 맞게 하는 겁니다.

#### ※ 사회사업가는?

1970년대까지 우파 색이 짙었습니다. 1980년 전후로는 좌파 성향이 강했는데 갈수록 우파에 가까워지거나 이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대학에서는 좌파나 중도에 가까울지라도 취업하면 우파로 변절하곤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이 당사자에게만 있다는 듯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하는 겁니다.

### 37. 사전의 강점 개념과 사회사업

사전에서는 강점을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이라고 하고, 약점을 ‘남에게 뒤떨어지는 점’이라고 합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삼갑니다. 개개인을 각각 고유한 존재로 개별화하여 도우려 합니다.

### 38. 강점과 자원

사회사업으로 이루려는 어떤 복지, 강점은 그것을 생각하며 쓰는 용어이고 자원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강점과 자원을 구분하지 않고 통용하곤 합니다.

보통은 둘 중에 (주로 강점) 하나만 쓰는데 강점과 자원을 병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 뜻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면, 강점은 지식 기술 재능 의지 성격 체력 탄력성 따위의 내재적인 것에 가깝고, 자원은 돈 물품 시설 장비 인력 서비스 따위의 외재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 39. 탄력성과 회복 탄력성

1) 탄력성은 어떤 조건이나 작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속성입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변통하거나 견디거나 회복하는 속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융통성 저력 맺집 따위로 부름 직합니다.

탄력성은 문제를 예방 회피하거나 해소 완화하거나 감당 극복 초월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적극적 복지를 이루는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2)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하는 탄력성입니다.

일단 어려운 상태가 되어야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변통하거나 견디는 힘까지 아우르지 못합니다. 문제를 예방 회피하거나 적극적 복지를 이루는 강점도 될 수 없습니다.

#### 40. 강점 관점, 강점 중심?

##### 1) 일을 선택할 때 보는 강점

- ① 당사자 쪽 강점을 보고 일을 벌입니다.
- ②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보고 일을 벌입니다.

##### 2) 문제를 다룰 때 활용하는 강점

- ①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돕습니다.
- ②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른바 강점 관점과 강점 중심은 몇 번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보고 일을 벌이거나 문제를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해결해 주면 무슨 관점, 무엇 중심이라고 할까요?

##### 3) 일을 선택할 때의 관점

문제를 보고 일을 벌이면 문제 관점, 당사자 쪽 장점 자원 또는 사회사업가 쪽 지식 기술 자원을 보고 일을 벌이면 강점(?)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분류하면 사회사업 이론서의 실천 모델은 대개 거의 다 문제 관점, 문제 중심, 문제 전용 모델에 가까워 보입니다.

##### 4) 문제를 다룰 때의 관점

문제는 약점과 강점의 상호작용의 양태, 일종의 생태 현상입니다.

여기서 약점은 문제에 약한 점 곧 문제가 생기거나 지속하거나 악화하기 쉬운 조건이고, 강점은 문제에 강한 점 곧 문제를 해소 완화 (예방 억지) 또는 감당 극복하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점입니다.

문제를 다루는 일은 약점을 다스리거나 강점을 살리는 일입니다. 약점을 다스린다 함은 약점을 수정 보완하거나 해소 완화한다는 말이고, 강

점을 살린다 함은 강점을 회복 개발하거나 개선 강화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단 문제를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다 문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결 방식은 강점 관점과 약점 관점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강점을 살릴 때는 강점 관점이라고 하고, 약점을 다스릴 때는 약점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사회사업 실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은 대개 강점 관점뿐입니다.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돕거나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양쪽 다 강점을 살려 문제를 해결하는 강점 관점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흔히 말하는 ‘강점 관점’은 일을 선택할 때의 관점일까요 문제를 다룰 때의 관점일까요? 양쪽 다일까요? 일을 선택할 때라면 ‘문제 관점’의 대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문제를 다룰 때도 그렇다 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다루는 실천 모델 가운데 문제 관점이 아니거나 강점 중심이 아닌 것도 있을까요? 문제를 다루는 데 해결 중심이 아닌 실천 모델이 있을까요? 해결 중심이 아니면 무엇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산 기반 접근은? 핵심 용어만큼은 되도록 다른 것과 구별되게 명명하고 이름과 개념과 실체가 부합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6) 사람 사안 상황을 헤아려 때에 알맞게 할 일입니다.

문제를 보고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나 그래도 괜찮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관점이니 중심이니 하는 이름을 붙인다면,

일을 선택할 때도 문제를 다룰 때도 생태 관점, 생태 중심이고 약점을 다스릴 때도 강점을 살릴 때도 생태 관점, 생태 중심이고 당사자 쪽 강점을 활용하게 할 때도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활용할 때도 생태 관점, 생태 중심입니다.

생태 관점, 생태 중심으로 헤아려 때에 알맞게 할 뿐입니다.



## 41. 임파워먼트

### 1) 관련 영어

empower clients : 당사자를 힘 있게 하다

en-em- : 명사나 형용사에 붙여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다, ~으로 만들다, (~로 하여금) ~이 되게 하다’라는 뜻의 타동사를 만들.

예: enable, enlarge, endanger, emboss, embank, empurple  
em- is usually used before words starting with b, m, or p..

overpower 사회사업가의 강점과 활약이 당사자를 능가하다.

overshadow 사회사업가의 강점과 활약이 당사자를 가리다, 당사자의 강점과 활약을 무색하게 하다.

dazzle 사회사업가의 강점과 활약이 당사자를 눈부시게 하다.

### 2) 권한 부여?

이는 권한을 확보하는 데 당사자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결과로서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과정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임파워먼트이고 오버파워먼트입니다.

사회사업은, 권한을 확보하는 데도 당사자가 힘 있게 합니다. 당사자가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권한을 확보하게 돕는 겁니다. 결과로서 권한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겁니다.

## 42. 사이렌과 오르페우스

지중해 어느 섬에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 감미로운 노래로 유혹하여 선원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무사히 통과한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1) 용맹한 영웅 올리시스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노래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몸은 돛대에 묶었습니다. 간신히 살아서 지나갔습니다. 유혹과 고통스럽게 싸워 겨우 건디어 낸 겁니다.

2) 음악 영웅 오르페우스는 요정의 노래보다 더욱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선원들은 요정의 노래에 홀리지 않고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연주를 가까이하니 요정의 노래는 절로 멀어진 겁니다. 그리스신화

### 43. 바위와 강물

양쯔 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위를 만나 “바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니 “바위를 없애 주랴, 강물이 불어나게 해 주랴?” 하셨습니다. 워치만 리가 본 환상 이야기라고 합니다.

1) 바위와 씨름합니다. 바위를 깨뜨리거나 치워 줍니다. 이는 미봉책입니다. 지금 이 바위를 해결해 주면 이곳은 지나가겠지만, 긴 항해에 이 바위뿐이겠습니까?

2) 바위를 따돌립니다. 바위와 씨름하지 않고 강물과 상관합니다. 바위 때문에 뱃길이 막히지 않을 만큼 강물을 불립니다. 지금 이 바위뿐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바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바탕을 살리는 겁니다.

#### 44.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fantasy, to help me through reality.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ll cross the stream - I have a dream : Abba

나는 꿈이 있고 부를 노래가 있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꾸며 살아간다면 마침내 이룰 것입니다. 때로 실패할지라도.

나는 천사를 믿습니다. 모든 일 모든 것에서 좋은 점, 강점을 봅니다.  
나는 천사를 믿습니다. 때가 되면 마침내 해 낼 것입니다.

나의 꿈 그 환상이 있으니 어떻게든 현실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으니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나아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난관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길이 험하거나 멀지 않고 현실의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꿈이 있고 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천사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강을 건널 수 있고, 때로 실패할지라도 끝내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멀고 험한 길이라도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anything, the stream, reality, the darkness

이는 눈앞의 과제 또는 나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입니다. 없는 게 좋기만 할까요?

dream, song, vision, angel, something good, fantasy, destination

이는 강점입니다. 이러한 강점이 있으면 당사자가 cope with anything 할 수 있고, cross the stream할 수 있고, through reality할 수 있고, pushing through the darkness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돕는 편이 좋을까요?

문제를 없애 주거나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하거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해 줄까요? 꿈, 노래, 비전, 좋은 일, 이웃, 목표가 있게 도울까요?

#### 45.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 존재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 보통의 사회사업가가 어떤 지식이나 기술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2) 문제의 근원을 다스리는 방책이 아니라면, 문제를 보고 덤벼드는 일이 그야말로 뒤치다꺼리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장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앞세워 문제를 호도하고 약자를 통제하려는 세력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3) 어려운 문제는 십중팔구 해결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공산이 큽니다. 사회사업가만 애매히 무력감에 빠져들거나 부담감에 짓눌릴 게 뻔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한다 해도 기회비용이 클 겁니다.

4)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문제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더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타인을 더 깊이 이해 공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공동체 결속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라고 다 없앨 일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없애는 일이 꼭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당사자의 삶도 지역사회 사람살이도 역경과 순경이 씨줄 날줄처럼 엮여 이루는 생활의 총체인데 한쪽을 없애면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5) 함부로 문제라고 규정하고 전문적 개입이라는 미명하에 무례를 범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어설픈 관심으로 멀쩡한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진짜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를 꼭 없애야만 하는지, 없앨 수 있는지, 문제만 없어지고 부작용은 없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섭니다. 긴급하거나 치명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돌아서는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물러서니 무능한 사람, 냉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섭니다. 잘할 수 있는 일로써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려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6)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돕는 일은 해 볼 만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없애는 일은 잘하지 못해도 적극적 복지를 이루는 일, 적극적 사업은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소 완화할 수 있고 감당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쉽고 재미있습니다. 별 부작용도 없습니다. 역량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이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46. 당사자 쪽 관계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넓게는 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이웃 관계까지 아우릅니다.

당사자 쪽 관계야말로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지탱하는 근본 관계이고 향산적 바탕입니다.

사회사업은 이 관계를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데 주력합니다.

※ 자연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만 각각 전문 직업이 따로 있으니 사회사업은 ‘사람 관계’에 주력합니다.

### 1)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

당사자 쪽 관계를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느 관계에서는 돕는 사람을 봉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당사자 쪽 관계를 이처럼 보통의 사회적 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이게 돕습니다.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에서는 대상자의 격이 떨어져 보이기 쉽습니다. 봉사자의 명예와 대상자의 불명예가 비례하여 봉사자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대상자는 구차해 보이기도 합니다.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는 불평등하기 쉽습니다. 봉사자는 높고 대상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대상자가 약자 노릇 하기 쉽습니다.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이러므로 이웃을 봉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이웃으로,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돕게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함께하거나 조금 더하게 합니다.

가끔 같이 밥 먹거나 차를 마시기도 하고, 함께 운동 산책하거나 소풍 가기도 하고, 목욕탕 미용실 시장 식당 공원 극장에 같이 가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누기도 하고,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 주기도 하고, 종종 안



부를 확인하거나 축하 위로 격려 응원하기도 하는 이웃,  
이렇게 평범한 이웃으로 무엇을 나누거나 융통하거나 돕거나 함께하  
게 주선하면 좋겠습니다.

## 2) 관계의 유지 보수

관계를 주선한 후에는 빠져도 될까요? 빠져야 좋을까요?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지거나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주선한 후  
에도 조정 중재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살펴서 칭찬 감사로써  
응원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주선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웃이 바뀌기도  
하고 당사자가 바뀌기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도 그러합니다.

관계 그물에 '벼리'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삼천 코라도 그것을 꿰어 지  
탱하는 벼리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살펴서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선을 만들 뿐 아니라 거미처럼 어부처럼 선들을  
엮어서 그물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나름이고 사람 사안 상황 나름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 47.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는 복지사업에 종속하는 일시적 관계입니다.

당사자 쪽 관계 곧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에 비하면 말단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사업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준비 자원 재주가 좀 부족해도 내용이 좀 부실해도, 사업은 잘될 수 있습니다. 잘됩니다.

### 1) 불평등한 관계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불평등하기 쉽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를 의식하고 스스로 경계합니다. 마음을 당사자보다 높은 곳에 두지 않고, 전문가인 양 행세하지 않고, 당사자를 그 복지의 주체로 존중하여 세우려 합니다. 더욱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 2) 인간적 관계

사회사업가는 당사자 특히 약자와의 인간적 관계가 없으면 가슴이 식어 버리기 쉽습니다.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사회사업 재미없어집니다. 복지인생 건조해집니다.

당사자들과의 인간적 관계가 있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돕고 싶은 선한 근심과 고뇌로 가슴이 뜨겁습니다.

당사자들과 인간적 관계가 있으면 그들이 사회사업가를 도와줍니다. 잘하면 칭찬 인정해 주고 힘들어하면 위로 격려해 줍니다.

당사자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 축축하게 오래 잘할 수 있습니다.

## 48. 사회사업가 쪽 관계

사회사업가 홀로 사회사업 잘할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 동료나 지역사회와도 관계 소통 잘해야 사회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신과의 관계, 가족·친지·이웃과의 관계도 사회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니 잘 관리해야 합니다.

1) 사회사업가가 상관해야 할 사람을 당사자 체계, 변화 매개 체계, 행동 체계, 표적 체계, 다리 체계, 전문가 체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당사자 체계와 표적 체계는 대개 당사자 쪽 관계 영역에 가깝고, 변화 매개 체계와 전문가 체계는 사회사업가 쪽 관계 영역에 속합니다. 행동 체계나 다리 체계는 중간쯤이거나 섞입니다.

2) 사회복지계의 좋은 동료들과 지지와 격려, 자극과 책선,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 오래 잘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사업가와 당사자를 이어 주는 사람, 사회사업가와 지역사회의 사람 자원 기회를 연결해 주는 사람, 이렇게 다리 구실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4) 표적 체계라 하는 변화 대상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정중하게 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그 사정이나 의도를 알아주면, 예의를 갖추어 부드럽게 말하고 오래 참으면, 스스로 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5) 사회사업가 쪽 관계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기를 삼갑니다.

사회사업가 쪽 관계는 당사자 쪽 관계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는 데 활용합니다. 사회사업가 자신의 일을 위해 활용하는 겁니다.

## 49. 관계의 양면

1) 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해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괴로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피하여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인간으로 산다는 건 어찌면 이런 관계까지 끌어안고 부대끼며 산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정붙일 데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라는 겁니다.

2) 관계로써 돕는 일, 관계를 살리는 일도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버리고 달리 무엇으로 사람을 도울까요? 사회사업가가 말입니다.

관계로써 돕는다고, 관계를 살린다고, 무턱대고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왕래하면 좋을 관계,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눌 만한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당사자와 의논하여 그리합니다.

3) 관계가 약해졌으니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는 관계를 아주 허물어 버리거나 퇴화시켜 결국 복지 바탕을 고사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사회는 약자가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버리고 인공복지로 연명하는 사회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 50. 방법은 간략하게

1) 꼼꼼히 읽어 주기 바라지만 대충 훑어보고 새겨듣기 바라지만 대충 넘겨듣곤 합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로 뭉뚱그리고 한두 마디 자기 말로 바꾸어 기억하곤 합니다. 복잡하면 일단 제쳐두거나 입력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독자나 청자의 이런 경향을 감안합니다.

2) 보통의 사회사업 교육을 받고 보통의 복지기관의 일선에서 일하는 보통의 사회사업가를 생각합니다.

배우기 쉽고 기억 적용하기 좋은 방법, 간략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되도록 세 마디를 넘지 않게 합니다.

한마디만 기억하고 적용해도 좋을 방법을 생각합니다.

## 51. 인사와 감사

### 1) 인사

신입 전입은 인사 다니기 좋은 명분입니다.

새로운 당사자를 돕게 될 때, 부서나 업무가 바뀔 때도 인사 다니기 좋은 기회입니다.

### 2) 감사

수시로 감사하되 마칠 때 더욱 감사합니다.

부서나 업무가 바뀔 때, 퇴사할 때도 두루 감사합니다.

사회사업은 인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완성합니다.

## 52. 사회사업 이렇게 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1) 이렇게 하면 이론과 실체가 가지런해집니다.

이 방법으로써 되는 사회사업 실체가 앞서 밝힌 사람다움 사회다움,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꼭 들어맞게 됩니다.

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됩니다.

②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이 삽니다.

③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가 얼마쯤 이루어집니다.

④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고 복지가 지역사회에 흐르게 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살고 지역사회의 일반 수단이 보편적 수단으로 변화해 갑니다.

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강점, 관계가 삽니다.

2) 이렇게 하면 당사자가 자존심 체면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3) 이렇게 하면 사회사업이 재미있습니다.

복지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동합니다. 눈물 나게 행복합니다.

4) 이렇게 하면 사회사업이 수월하고 편안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이루니 예산 따위를 신청하고 받고 쓰고 뒤처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일에 기록과 얼마간의 행정 사무를 더할 뿐입니다.

### 53. 교류 분석

- 1) 사회사업가가 Controlling/Critical Parent ego가 강할 때는 권위주의에 빠져 당사자를 애 취급하기 쉽습니다.
- 2) 사회사업가가 Nurturing Parent ego가 강할 때는 온정주의에 빠져 당사자를 우민화하기 쉽습니다. enabler 되기 쉽습니다.
- 3) 사회사업가가 Adapted Child ego가 강할 때는 당사자와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끌려가기 쉽습니다. 사회사업 근본이나 기관 정책에 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4) 당사자가 Adapted Child ego로써 말할 때 Nurturing Parent ego로써 응수하다 보면 의존성을 낳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기 쉽고 결국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 5) 당사자가 Free Child ego로써 말할 때 Controlling/Critical Parent ego로써 응수해도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항하다 좌절하고 결국 사회사업가가 알아서 하라고 내맡겨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언급할 때는 Nurturing Parent ego나 Adapted Child ego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관계 또는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자아 상태로 당사자를 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하므로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Adult ego state로 상대함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어떤 자아로써 말하든지, 사회사업가가 어떤 자아 성향이 강하든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이 좋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애 같은 노릇 하지 않고 우민화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수렁에 빠지지 않고 권위주의나 온정주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교류분석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석하여 무엇을 알아낸다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저 정의정심으로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따름입니다.



## 54. 공감과 동정

### 1) 공감 empathy, empathizing

① 당사자의 처지, 생각 감정 행위, 이야기를 최대한 그 사람처럼 이해하여 소통하려고 함. 또는 어떤 것에 대하여 감정이나 인식을 공유함  
복지요결에서 이야기하는 ‘경청’은 전자에 가까운 공감 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했거나 하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하며 듣습니다. 조심스럽게 묻거나 헤아려서 알아주기도 합니다.

그 생각 감정 행위, 그 이야기를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고, 소통하려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 ② 당사자의 감정과 그 의미를 감지하고 전달하기(communicate)

Clients experience support and trust when social workers respond with empathy. Empathy is “the helper’s ability to perceive and communicate, accurately and with sensitivity, the feelings of the client and the meaning of those feelings.” Understanding a client’s feelings does not mean that social workers allow themselves to experience the same emotions as their clients.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9th ed. 2021.

### ③ 당사자의 감정을 알고 있고 얼마쯤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기(show)

Empathy is the capacity to show that you are aware of and can to some extent feel what the counselee is feeling. Sympathy is also sharing of feelings, but it has the connotation of pity. The difference is subtle, but empathy is oriented toward problem solving, whereas sympathy usually prolongs problems.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12<sup>th</sup> ed. Charles Zastrow.

## 2) 동정 sympathy, sympathizing

① 생각 :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여김 또는 가엾게 여김  
인지상정에 가깝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없거나 바꾸기 어려운 조건 예컨대 인종이나 민족, 지적 기능  
이나 감각 기능이나 신체 상태, 성이나 성적 지향, 소득, 직업, 출신지  
나 사는 곳 따위의 조건 그 자체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을  
이유로 분리 배제 차별 억압 확대당하거나 이런 조건으로 인해 아파하  
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처지를 동정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 ② 행위

a. 불쌍하다는 뜻이 대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이런 동정은 대개 비판 거부합니다.

b.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 또는 그런 도움

이런 동정도 비판 거부하곤 합니다. ‘시혜’로 여기는 겁니다.

비판받는 동정, 거부당하는 동정은,

바꿀 수 없거나 바꾸기 어려운 조건 예컨대 인종이나 민족, 지적 기능  
이나 감각 기능이나 신체 상태, 성이나 성적 지향, 소득, 직업, 출신지  
나 사는 곳 따위의 조건을 이유로 분리 배제 차별 억압 확대당하거나  
이런 조건으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처지를 동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런 조건 자체를 동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동정은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조심할 일입니다.

Sympathy grows from viewing others as weak and vulnerable.  
Showing pity and sympathy defines a hierarchy of those who are  
competent and capable and those who are unfortunate and needy.  
When social workers express pity or sympathy, they disempower  
clients.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9th ed. 2021.

Sympathy usually prolongs problems. For example, if you give me sympathy when I'm depressed, I'll keep telling you my sad story over and over, each time having an emotional outpouring supported by your sympathy, without taking any action to improve the situation. This process only reopens old wounds and prolongs my depression.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12<sup>th</sup> ed. Charles Zastrow.

55. 약자일수록 사회사업가의 영향이 큼니다.

어린 아이나 지적 약자의 언행에 사회사업가의 언행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재촉 지시 훈계 간섭 통제하는 것 같은 말과 말투가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과 말투를 배웠을지라도, 사회사업가가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해 왔다면 좋지 않은 영향이 얼마쯤 중화되지 않았을까요?

여느 사람은 여러 경로로 영향을 받는데, 지적 약자 시설의 입주자에게는 사회사업가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 56. 복지요결 요약 : 각 주제들 간의 연결 관계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하며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보는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고 이런 사회사업이 중시하는 핵심 가치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이런 사회사업의 이상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이고 그 철학은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복지가 사회 속에 흐르게 하며 복지 바탕이 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우려 할 때 특히 중점을 두어 살피게 되는 점은 생태, 강점, 관계 곧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방법이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게 돕고 사회를 사람 사는 것 같게 하는 사회사업의 요결이 이러합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으로부터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정체성까지 사회사업의 요결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으나 가리키는 실체는 동일하니 곧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입니다.

## 57. 사회사업가의 재주와 자원

사회사업가는 재주나 자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주나 자원이 없는 편이 좋은 경우가 많고, 있어도 쓰지 않아야 잘되는 일이 많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그 재주와 자원을 살려 쓰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재주와 자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합니다. 2%가 부족하면 98%를 살려 쓰게 하고 2%만 거들어 줍니다.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줄 수밖에 없거나 그러는 편이 좋겠다면 그렇게 하되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 58. 꺼져 가는 심지, 상한 갈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꺼져 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비켜, 우리가 해 줄게.’ 해도 될까요?

사회사업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잘 하지 않거나 못한다고, 그렇다고 대신 복지를 이루어 주는 노릇이 ‘사회사업가로서는’ 마땅찮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가는 꺼져 가는 심지를 돋우고 상한 갈대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니, 꺼져 간다고 덮어 버리거나 상했다고 꺾어 버리고 대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 59. 주는 노릇

사회사업가가 주는 노릇 하다 보면 평지풍파 일어나기 쉽습니다.

1) 안 받거나 못 받거나 덜 받는 사람은 배 아프고 아쉽고 섭섭하니 평지풍파이고, 받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2) 받는 사람 가운데 더러는 부끄럽게 여기고 사회사업가를 불편해하거나 피하기도 하니 평지풍파이고, 더러는 굽실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드니 평지풍파입니다.

3) 주는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니 평지풍파이고, 다음에 또 주어야 하고 더 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니 평지풍파이고, 비교당하거나 시비에 휘말리니 평지풍파이고, 욕먹거나 위협을 받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4) 사회사업가가 해 주거나 주면 안 될까요?

관계나 분위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혹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의 자수를 앞세우고 친해진 후에는 더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할 일입니다.

당사자의 수고 없는 시혜,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지 않는 방식, 사회사업가 쪽의 재주 재화로써 해 주거나 주는 일은 복지 바탕을 해치고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떠맡기려 할지라도 떠맡아 대신 해 주기를 삼갑니다.

그럴수록 더욱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거들어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되도록 사회사업가 쪽의 재주나 자원을 쓰지 않고 대신 해 주지 않고 주는 노릇 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일방적으로 해 주거나 주면 당사자가 자존감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라해지기 쉽고 심하면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주도권 통제권이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있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존 욕구, 이는 인간 본능에 가까운 기본 욕구인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의 내적 근거가 강하면?)

애정 욕구도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것만으로는 부부 사이도 애인 사이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 60.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 1) 탈무드 이야기

- ① 생선을 준다.
- ②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가난하여 생선을 살 수 없거나 장애가 있어 고기 잡으러 갈 수 없으니 생선을 준다? 몰라서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 다 문제의 원인이 당사자 쪽에만 있다는 듯 당사자만 상대하는 방식이고 당사자를 대상화하여 주는 노릇 하는 방식이라, 사회사업가가 취할 답은 아닙니다.

생선을 줌으로써 족할 수도 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줌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주기 나름이고 가르쳐 주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하기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원칙을 묻는 것이라면 둘 다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 2) 사회사업 이야기

- ① 당사자가 생선을 구하게 합니다. 정부 기관에 신청하게 하거나, 부탁할 만한 사람을 찾아 부탁하게 합니다.

지역사회가 생선을 주게 합니다. 고기를 잡거나 생선을 살 때 조금 더 잡거나 사서 나누게 주선합니다.

- ② 당사자가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둘레 사람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지역사회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김에 같이 가서 가르쳐 주게 주선합니다.

- ③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어구를 확보 또는 공유하게 돕습니다. 어장에 장애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를 개선하게 돕습니다.

## 61. 사회사업가의 별칭

### 1) 친민가

사회사업가는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하는 친민가,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하는 사업을 하는 친민사업가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친민지도'

### 2) 사회공작원

사회사업가는 사회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공작하는 사람, 사회공작원입니다

### 3) 사회운동가

사회사업가는 사회를 정의롭고 인간적이게 하자고 운동하는 사람, 사회운동가입니다.

### 4) 저항운동가

사회사업가는 세상의 비인간화에 맞서는 저항운동가입니다.

## 62. 복지관이 시설? 전달기구?

“사회복지관이란 …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관은 …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출처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 1) 시설?

복지관 건물은 시설이지만 복지관을 시설로 정의함은 적절치 않습니다. 복지부 청사는 행정시설이지만 복지부를 시설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회사업 기관입니다.

시설이라 하니 시설 중심 서비스를 하기 쉽고 그래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지관에 오게 하여 행사 프로그램 치료 교육 보호 상담했느냐는 식의 실적 평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 2) 전달기구?

전달 기능이 없지 않고 전달도 하기 나름이지만, 문자 그대로 ‘전달’한다는 말이 아닐 수 있지만, 복지관이 전달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로서는 전달기구라는 말 자체가 거북하고 민망합니다.

### 3) 차별성

문화센터나 학원, 이벤트 업체, 상담 기관, 여가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급식업체나 요식업소, 청소 업체, 배달 업체…

복지관이 제공 또는 전달하는 이런저런 서비스를 각각 이런 곳들에 용역으로 맡기고 복지관만큼 보조금 후원 봉사 면세 따위의 지원과 특혜를 제공하면, 차별성이 있을까요?

전문성이나 경쟁력은 어느 쪽에 더 있을까요? 복지관이 더 전문적 효과적 효율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서비스가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제공 전달할 필요성이 이 문제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하다고, 그만한 실효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입증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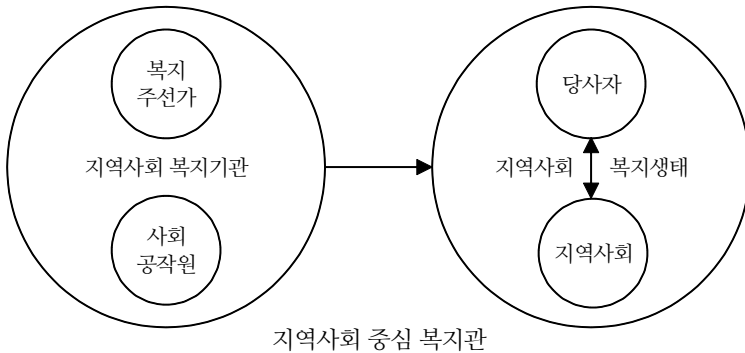
## 63. 지역사회 중심 복지관과 시설 중심 복지관

### 1) 지역사회 중심 복지관

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샅터에서 복지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갑니다.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빛나고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갈수록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많아지고 약자와의 관계 소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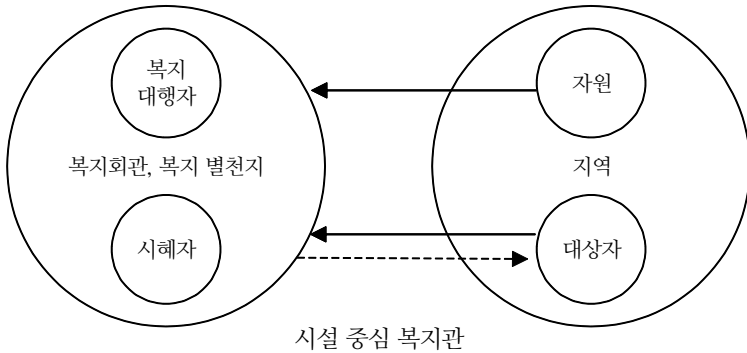


## 2) 시설 중심 복지관

주로 복지관에서 복지관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복지관이 사람들이 모이는 복지회관, 별천지 같은 곳이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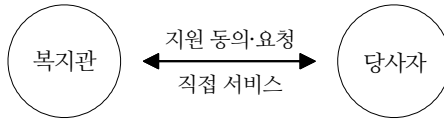
사람들은 복지관에 후원하거나 복지관에 와서 봉사합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와 함께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복지사업이 빛나고 복지관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옵니다. 갈수록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고 시설 복지사업, 복지 대행업, 복지 배달업이 증가합니다.



## 64. 개별사회사업

### 1) 직접 서비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당사자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①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합니다.

당사자가 하게 부탁하되 어려워하면 과정을 세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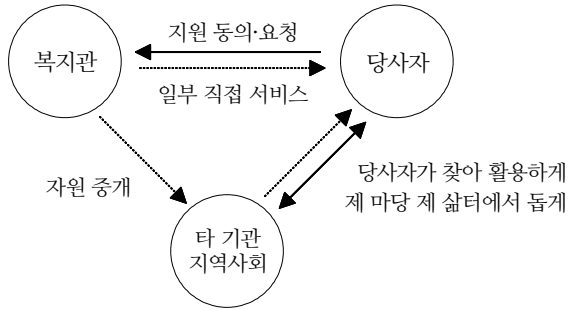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하되, 먼저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하에) 거들어 주거나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② 당사자 쪽 자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합니다.

복지관의 자원이라도 활용해야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되도록 당사자가 신청 활용하게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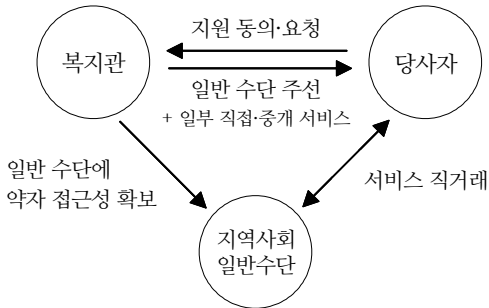
당사자가 둘레 사람과 함께하는 집단 활동도 이렇게 돕습니다.

## 2) 중개 서비스



다른 복지기관이나 정부의 자원, 지역사회 자원이 필요하면 당사자가 찾아 활용하게 중개합니다. 지역사회는 되도록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게 합니다.

## 3) 보편적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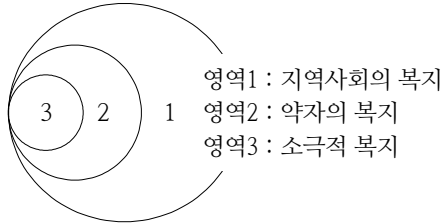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일반 수단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사람 또는 그렇게 되기 쉬운 사람을 도울 때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다만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서비스나 중개 서비스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복지수단을 혼자서 이용하기 어려우면 사람을 중개하고 비용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자원을 중개하기도 합니다.



#### 4) 개별 사회사업의 대안



① 지역사회 가운데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이 소극적 복지 욕구를 복지관에 이야기합니다. 복지관에서 그런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대상자를 찾아내거나 모집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서 비롯하던 개별 사회사업으로 돕는 사람은 전체 지역사회 가운데 일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복지 욕구 가운데 개별 사회사업에서 다루는 복지 욕구는 또 일부에 불과합니다.

② 영역3의 복지 욕구,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개인이나 가족의 소극적 복지 욕구를 다룰 때도 되도록 중개 서비스 및 보편적 서비스 방식으로 돕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그 복지뿐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복지, 다른 사람의 복지까지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영역1 곧 대다수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더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집단 사회사업과 지역 사회사업이 그런 일입니다. 이런저런 복지 활동으로 어울리며 서로 돕고 나누는 ‘정겨운 사람살이’를 살리는 일입니다. 영역3의 문제를 예방 억지 해소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65. 주민조직의 독립?

주민조직이 사회사업가 없이도 꾸준히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할까요?

### 1)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은 생업이나 집안일이 아니면 마음 쓰기 어렵고 어떤 일이든 전념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습니다. 한때 여력이 있어 의욕적으로 참여할지라도 꾸준히 해 나가는 어렵습니다. 조직을 책임지고 꾸려 나가야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참여하고 싶지 않을지 모릅니다.

주민조직은 인간관계에 민감합니다. 지도자가 바뀌거나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오해 질투 비판 구설수가 따르기도 합니다. 자기 이해가 걸린 일이 아니거나 의무가 아니라면 책임지고 지키려 들지 않을 겁니다. 싫으면 그만입니다. 하지 않겠다면 그만입니다. 도시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 2) 그렇게 함이 좋을까요?

사업 나름이지만, 조직의 사업을 주민이 책임지고 잘해 나가려면 자기 일에 소홀해지거나 여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수단이 되는 조직, 조직의 사업을 위해 구성원을 동원하는 조직, 구성원이 자기 생활과 별도로 뭔가 해야 하는 조직, 이런 조직은 되지 않게 함이 좋겠습니다. 지역복지사업으로 이런 조직이 생긴다면 꺼림칙합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 독립시키는 건 더욱 그러합니다.

주민은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야 저마다 제자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3) 구성원들의 이익·취미·자치를 위한 조직은 사회사업가가 만들더라도 계속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조직이라도 그 조직 자체의 상근자가 생기면 그러합니다.

이런 조직이라면 독립할 수 있겠고 독립하는 편이 좋을 수 있겠으나 독립이나 유지 여부로써 조직 사업을 평가할 건 아닙니다.

## 66. 지역 주민이어야 하는가?

### 1) 지역 주민이면 더 좋은 관계로 일할 수 있을까요?

사람 나름이고 지역 나름이지만,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적 인간관계가 사회사업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사적 인간관계 자체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적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이해관계자로 얽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도 한두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이니 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쪽이나 도와주는 쪽이나 아는 사이라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이든 아니든, 아는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사회사업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잘됩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해야 잘됩니다.

### 2) 지역 주민이라고 지역과 주민을 잘 알까요?

#### ① 주민 나름 아닐까요?

주민이라서 더 잘 아는 것도 있으나 오히려 더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 제대로 아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 할 대상도 나름입니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사회사업가가 어떤 일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고, 같은 주민이라도 어떤 사회사업가가 어떤 일로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아는 것도 나름입니다. 다만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할 만큼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그렇게 잘 알아야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② 지역 주민이면 지역 주민을 더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사업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집단화, 일반화를 경계합니다.

저마다 겪는 어려움의 종류나 정도가 다르고 욕구나 필요가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관계망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자산·소득이나 생활환경 따위의 온갖 조건이 다른데,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다른데, 누가 지역 주민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역 주민이든 아니든, 지역과 주민을 알든 모르든, 사회사업은 두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일입니다. 두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사회사업하는 데 필요한 만큼 알아야 할 건 알게 됩니다.

3) 지역 주민의 처지에서 지역 주민의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역 주민의 처지나 시각이라는 게 있긴 있을까요? 주민 나뉘고 같은 주민이라도 때에 따라 상황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따름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의 처지에서 지역 주민의 시각으로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요컨대 지역 주민 여부는 사회사업에 그리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사회사업은 지역 주민이어야만 되는 일도 아니고 지역 주민이라고 더 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역 주민이어서 유리할 수 있으나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아니어서 불리할 수 있으나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안 상황 나뉘고 사회사업하기 나뉘입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잘 됩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해야 잘 됩니다.

## 67. 평생학습(사회교육) 프로그램

악기, 노래, 춤, 미술, 서예, 구연동화, 외국어, 인문, 클래식, 가베·에드라짐·레고, 바둑·장기, 요리·효소·장, 차·커피, 마사지·수지침, 바느질·뜨개질·퀼트, 옷 수선, 수납정리, 집수리·목공, 천연염색, 한지·리본·비즈·찰흙·비누공예, 재활용, 종이접기, 컴퓨터, 꽃꽂이, 생활체육, 탐구·실험, 육아, 반려동물 돌보기, 화초재배, 텃밭농사...

강좌마다 해당 분야의 동호회나 전문 기관 단체 업체, 복지관 수료자 모임 같은 지역사회 조직을 찾거나 만들어 위탁 운영합니다.

이런 조직이 각각 자기 분야의 강좌를 기획하고 홍보 접수 운영 관리합니다. 복지관은 공간 장비 물품 예산 행정을 지원합니다. 지도자 연수, 공동 브랜드 활용, 홍보물 공동 제작, 전문 강사 섭외, 연합 행사, 강사 회의 따위를 주선합니다. 수강료는 복지관이 직영할 때처럼 저렴하게 하고 수익의 일부를 법인이나 복지관에 기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와 복지 역량이 커지고 복지관의 사업 기반이 확대 강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지관의 명분과 실리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들과 상생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1) 프로그램의 겉모습은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라도, 실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① 주민의 강점이 발휘되고 주민의 역량이 자라납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이 살아납니다. 복지관의 활동기반이 탄탄해집니다. 지역사회 복지 자산이 축적됩니다. 복지관 사업에 매우 중요한 지지·협력 체계가 됩니다.

②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강좌 및 수강생 관리를 주민조직 혹은 전문 교육기관이 맡게 되므로 사회복지사는 사회사업 핵심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복지관 자체적으로 사회교육사업을 하면, 비슷한 일을 하는 주민조

직이나 교육기관과 경쟁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주민조직이나 전문 교육기관을 주체로 하여 그 명의를 세워 주고 이익을 얻게 하면, 상생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도, 복지관도, 명분과 실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2) 복지관 시설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사회교육(평생학습) 활동을 위하여 이용하는 지역사회 시설입니다. 복지관 기관은 지역사회가 사회교육(평생학습)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지원기관입니다.

3)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사회사업가는 자존감을 잃기 쉽습니다.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냐며 불평하거나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사업하기 좋은 소재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유익합니다. 주민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해 줍니다. 주민이 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찮게 여기거나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애정을 갖고 성실히 봉사해야 합니다. 수강생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겨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맡은 프로그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사회사업가를 보았습니다. 수강 신청 접수할 때 한 분 한 분 차를 대접하며 극진히 대한다 했습니다. 그 분이 만든 사회교육 홍보물은 마치 백화점 문화센터의 홍보물 같았습니다. 담당자가 자기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 하는지 그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 68. 반찬 사회사업, 김장 사회사업

### 1) 반찬 마실

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거들어 드리면 어르신들이 식단도 짜고 장도 보고 조리도 하고 그렇게 반찬 만들어 나눠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럿이 모여 함께 만드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거들어 드릴 테니 어르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오시기 힘들면 저희 차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반찬 마실을 제안합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장에 갑니다. 장보시는 풍경이 정겹습니다. 젊은 사람이 짐 들어 드리고 운전하지만 누가 장을 봤다 하실까요?

어떤 분은 앉아서 재료 손질하시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서서 일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저 간만 보시고 좋다 하시거나 소금 더 넣어라 물 더 부어라 훈수하십니다. 젊은 사람이 이리저리 심부름하고 이것저것 거들어 드리지만 누가 반찬 만들었다 하실까요?

정답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반찬 만드시고 점심 지어 잡수시고 차 마시고 각자 드시고 싶은 반찬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니다.

이렇게 이 동네 저 골목 가까이 사시는 어르신 몇 분과 둘레 사람 몇 명씩 모여 반찬 마실 하시게 주선하면 어떨까요?

반찬 만드실 의욕이나 기력이 약해지신 분, 가끔 이렇게 나오셔서 이야기 나누시며 반찬 만들고 점심 드시고 차 한잔하시고 반찬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 하기 어려우면 나들이 행사처럼 가끔 한 번씩 해 보면 어떨까요?



## 2) 반찬 이웃

먼저 어르신에게 여쭙고 의논한 후에, 요청이나 동의하에, 이웃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반찬 만드실 때 조금 더 하셔서 나누시면 어떨까요? 장에 가실 때 반찬거리 여쭙어 사다 드리거나 가끔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주선하면 이웃은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어르신을 돕습니다. 어르신은 이웃이 반찬 가져오니 무엇이든 담아 주려 하십니다. 어떻게든 갚으려 하십니다.

이렇게 관계를 살려 반찬 복지를 이루게 도우면 반찬 복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복지도 이루게 됩니다. 이 관계 속에 이것저것 나누거나 빌려주거나 함께하거나 도와주는 정이 흐르는 겁니다.

## 3) 반찬 배달

반찬 마실, 반찬 이웃으로써 반찬 복지 이루는 어르신이 늘어 가는 만큼 기존 반찬 배달 사업의 대상자를 줄여 갑니다.

기존 반찬 배달 사업에서도 어르신이 주인 노릇 하시는 일이 많아지고 그 수준이 높아지게 합니다.

반찬 종류를 의논하고, 재료를 구입 또는 주문 검수하고, 창고나 냉장고에 넣고 꺼내고, 다듬고 씻고 조리하고, 포장하고, 배달 수거하거나 가져가고 가져오고, 반찬통 세척하고 넣고 꺼내고, 기록하고... 과업을 세분하여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게 주선하고 거들어 드립니다.

반찬 재료를 업체와 계약하여 일괄 조달해야 한다면 ‘장보기’는 빼고 업체 선정이나 조달 과정에 참여하시게 합니다. 위생이니 보건증이니 하는 조건이 까다로우면 ‘반찬 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조직이나 동아리 사업으로 합니다.

이렇게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이라도 당신 반찬 생활의 주인 되게 합니다. 반찬 종류를 예고하고 그 반찬의 좋은 점과 드시는 법을 소개합니다. 개인별 욕구를 일일이 맞춰 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배달해 줄 사람 찾는 일을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 4) 김장 잔치

저마다 배추 한두 포기, 무 한두 개, 양파 몇 개, 생강 마늘 고춧가루 조금, 소쿠리, 도마와 칼, 큰 대야 따위를 가져와서 함께 김장합니다.

할아버지 어른 노릇, 할머니 훈수, 아주머니 솜씨, 아저씨 힘, 오가는 정담과 웃음, 아이들 소리…

저마다 조금씩 보태고 거들어서 잔치처럼 김장합니다.

김 모락모락 나는 밥에 막 담근 김치 얹어 먹으니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동네 김장’ 한다 하니 누군가 돼지고기 삶고 전 부치고 막 걸리나 떡 따위를 내놓습니다. 흥겨운 잔치 한 판 벌여줍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했고 앞집 할머니가 저렇게 했다… 신나고 기가 삽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집 저 집, 사람 사이에 관계가 살아나고 인정이 흐릅니다.

이 동네 저 골목 마을 곳곳에서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가까운 이웃끼리, 삼삼오오 이렇게 김장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나 복지관 마당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김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도 장애인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재료나 비용도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감당하게 함이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도와줄 곳을 찾되 되도록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찾게 돕습니다.

## 69. 경로식당

### 1) 복지관 정체성

- ① 기관 : 복지관은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점심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기관입니다. 점심 복지 전달체계나 점심 복지 대행업체가 아닙니다.
- ② 시설 : 경로식당은 어르신과 지역사회가 점심 복지를 위해 이용하는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시설입니다.

### 2) 점심 사회사업

- ① 어르신께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식당 운영과 이용 규칙 정하기, 식단 짜기, 재료 구입,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식권 배부와 안내, 질서 유지, 문서 작업 따위에 함께하시게 합니다. 저마다 할 수 있는 만큼 낱짜 시간 비용 업무를 분담하여 당신들의 점심 복지를 이루시게 합니다.

- ②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이런저런 단체 회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여, 저마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낱짜 시간 비용 업무를 분담하여 어르신 점심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나아가 어르신 맥의 주방 환경 개선, 노인용 취사·식사 도구 지원, 밥상 공동체 따위의 자조집단, 둘레 사람이 종종 어르신과 함께 식사하거나 어르신 식사를 돕는 밥상 이웃을 생각합니다. 어르신 맥과 지역사회에서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점심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 70. 반찬 배달 사업

1) 반찬 배달 사업은 빛나는데 정작 중요한 당사자의 삶이나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는 쪽은 천사같이 보이는데 받는 쪽은 구차해 보입니다. 주는 쪽의 명예와 받는 쪽의 불명예가 비례합니다.

사업자와 봉사자가 주연·조연으로 활약하고 당사자는 주연·조연을 빛 내 주는 배경에 불과합니다.

2) 이웃이나 친지가 반찬을 가져오면 그릇에 무엇이랴도 담아 주려 합니다. 당장 주지 못해도 언젠가 어떻게든 갖고 싶어 합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게 마련,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노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어른의 위신, 체면 때문에라도 가만있지 못합니다. 노인의 자존심이요 염치요 살아온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리고 사는 살림살이입니다. 봉사자나 대상자가 아니라 당신 삶의 주체로 또한 사람살이의 주체로 주고받으며 서로 살리며 사는 겁니다.

이에 반해 복지기관이나 봉사단체 등 조직의 사업으로 하면 빈 접시 돌려줍니다. 처음 몇 번은 혹 사탕이라도 쥐어 주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구나 배달하는 사람이 바빠서 대화는커녕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돌아오는 건 빈 접시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빈 접시만 돌아올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이겠습니다.

평생 익숙하게 해 오신 반찬 솜씨, 반찬에 대한 선택·통제, 어른의 체면·자존심·염치 그 ‘인격’을 반찬값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관계’도 반찬값으로 내놓습니다. 반찬 나눠 먹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좋은 것 아니라도, 맛이나 영양은 어떨지 몰라도, 좀 어설프고 부족해도, 그래도 가끔 반찬을 가져오거나 만들어 놓고 가던 이웃 가족

친지의 걸음이 줄어듭니다. 걱정해 주고 살펴봐 주고 반찬이라도 챙겨 주던 정, 그 관계가 사라져 갑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들로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반찬 사업 하나로 인격과 관계가 얼마나 상하겠는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겁니다. 당사자의 인격과 관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 인간관이 무서운 겁니다.

반찬 사업만 보면 작은 일인지 모르나 매사에 이런 식으로 돕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 3) 왜 반찬 사업 대상자가 될까요?

반찬을 못 만드실 정도로 반찬거리나 돈이나 힘이 없어서일까요?

① 식구 즉, 밥상 같이할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눠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의욕을 잃어 가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반찬 만드는 데 같이할 사람, 반찬 나눠 먹을 사람, 이런 사람 관계를 주선하는 게 반찬 사업의 핵심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 관계를 주선해주면 이 관계 속에 나누거나 융통하거나 함께하거나 도우며 사는 정이 소통되지 않겠습니까?

반찬뿐만 아닙니다. 과일을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릇을 빌리거나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다과, 식사, 장보기, 목욕, 이·미용, 나들이, 산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봐 주거나 택배를 받아 주거나 옷을 수선해 주거나 이런저런 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나누거나 융통하거나 돕거나 같이 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사람 사는 것이지요. 이런 이웃 관계와 인정, 이것이 복지를 이루며 더불어 사는 사람살이입니다. 이런 관계와 소통이야말로 어르신 을 돕는 근본 토대요 향산적 바탕입니다.

② 기력이 약해져서일까요? 그렇다면 부족한 2%를 거들어 드리자. 100% 대신 해 드리기보다 2%를 거들어 드려서 100% 그분의 삶이 되게 하자. 살아 있는 한 끝까지 그분의 삶이게.

## 71. 김장 사업

### 1) 하나 더 방식

2003년 대구 서북지관 박 선생은 김장김치를 구입하거나 봉사자를 모아 김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끼리 나눠먹던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를 회복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이 되게 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이웃 관계 속에 김치 복지를 내장하려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김장할 때 몇 포기 더 해서 이웃과 나누도록 주선했습니다.

자기 식구 먹이려고 좋은 길로 정성껏 담은 김치라 맛도 있고, 어차피 하는 김에 몇 포기 더해서 주는 것이니 부담 없고, 비용이 적게 들고, 사람들을 만나며 인정과 나눔을 소통시키니 일하는 재미가 있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협력자가 될 것이므로 든든합니다.

### 2) 관계 중심 나눔

2004년 서울의 북북지관 김 선생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되는 방식, 즉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주민의 삶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김장김치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복지관이 대신 해 주면 동네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모르거나 남의 일로 여깁니다. 이웃 간의 관계와 인정은 퇴화합니다. 김장철에 김치 나눠 먹는 건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살이인데, 그걸 특별한 행사나 사업으로 만드는 게 어색하고, 어르신이 일방적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 나눠 먹는 게 그저 평범한 삶이면 좋겠다. 이것을 구실로 수요자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면 좋겠다.” 하

여 수요자와 이웃 사이에 관계를 맺어 주고,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살이로써 나눔이 소통되도록 주선했습니다.

먼저 김치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여쭙었습니다. 어떤 김치를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이웃에서 김장할 때 몇 포기 더해서 나누도록 주선했는데 괜찮은지, 그 이웃이 김치를 직접 갖다 드려도 될지 아니면 복지관을 통해서 드리는 편이 좋을지, 이웃과 함께 김장하시는 건 어떤지... 여쭙었습니다.

또한 김치를 주겠다는 이웃 가정을 모집하되, 찾아뵙고 의논하였습니다. 동네에 이런 어르신이 계시는데, 김장하실 때 한두 포기 더해서 직접 갖다 드리는 건 어떤지, 김장하실 때 그 어르신 모셔서 함께하시거나 김장 후에 쌀밥 짓고 고기 삶아서 함께 드시는 건 어떤지...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자존심과 인격적 품위를 지켜 드린 겁니다. 이웃을 존중했고 어르신과의 관계를 주선했습니다.

이는 김장 김치 하나를 보고 임기응변하는 게 아니라, 김장 김치를 구실로 삼아, 다양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항산적 바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김치 뿐 아니라, 반찬, 양념, 과일, 채, 그릇 등을 서로 나눠주거나 융통하고, 다과, 식사, 뜨개질, 의류 수선, 세탁, 장보기, 목욕·아미용, 나들이, 아이보기, 산책 등 일상 활동을 함께하거나 서로 도와주는 이웃 관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 3) 지역아동센터 김장

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실입니다. 공부방 활동을 알리고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김장도 사회사업 소재가 됩니다. 먼 곳에서 김치를 후원받거나 구입할 수 있지만, 이 일에 상관있는 지역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사회사업입니다.

전국OO협의회 카페에 ‘도움 주고받고’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김치 후원해요, 김치 필요해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김장은 좋은 사회사업 소재이고 절호의 기회인데, 이

렇게 좋은 것을 버리고서, 어디에서 손쉽게 얻어다 먹이려는 마음이 안 쓰러웠습니다. 이렇게 별 상관없는 곳에서 얻어다가 주기보다 동네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편이 더욱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혹은 부모님들께 부탁드려서, 배추 한두 포기, 고춧가루 한 봉지, 무 한두 다발, 마늘 한두 다발, 양파 한두 망, 생강 조금, 소쿠리, 도마와 칼, 대야... 이렇게 십시일반 재료와 도구를 모으고,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동네사람들이 함께 김장하면 어떨까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채소와 양념을 후원하거나 다듬거나 간하거나 양념 만들거나 버무리거나...

할머니 훈수, 아주머니 솜씨, 오가는 정답, 아이들 소리...

이렇게 담근 김치로 밥 먹는데, 돼지고기라도 삶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네잔치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신나고 기가 살아납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다, 앞집 할머니가 만들었다...

이웃 사람도 달라집니다. 공부방이 보이고 아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연히 마음도 갑니다. 아이들에게 너른 품,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복지 환경이 됩니다. 아이와 어른, 아줌마와 아줌마, 할머니와 아줌마, 이 집 저 집, 사람 사이에 관계와 소통이 살아납니다.

2004년 겨울 이렇게 김장했습니다.

‘한 포기 더’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동네사람들과 부모님들께 김치 한 포기씩 부탁드리면, 부담이 없어서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고, 공부방에 대한 관심도 더해지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기 집에서 김치 한 포기 가져오면 아이 자존심도 살고 가족의 관심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관계, 참여 문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기르고, 정을 나누고, 김치도 해결하는 방식. 재미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데 지



역사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지역사회 자체를 복지생태로 만드는 데 힘쓰자는 겁니다. 공부방 김장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구실이요 기회입니다. 2004.11.25.

#### 4) 사회사업가 정체성

김장 김치 지원 사업에서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시다. 사회사업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회사업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 ① 사회사업가는 김장을 하거나 김치를 사거나 나눠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김장하거나 나눠 드시도록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 ② 사람과 자원을 끌어 모아서 김장 김치 지원 사업에 집어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계와 일상생활 속에 풀어내어 그들의 것으로 소통시키는 사람입니다.
- ③ 김장 김치를 구실로 개입하여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어 주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눠 주고 융통하고 함께하고 돕는 일이 자연스럽게 소통되도록 공작하는 사람입니다.
- ④ 김장 김치 사업을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 영역의 일로 만들지 않고 보통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 ⑤ 공동체성이 꺼져 간다고 그것을 덮어 버리고 복지관 사업으로 대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꺼져 가는 공동체성을 돋우고 인정과 나눔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살림살이가 되도록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사업가는

특별히 복지라는 이름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람 사이에 두루 있게 합니다. 향산적 복지 바탕을 살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반찬을 만들거나 나눠 먹는 것과 같거나 비슷한 방식이 되게 합니다.

## 72. 장애인을 지원하는 일

1987~1993년에 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건강 지원

건강 운동, 재활 운동을 해 보았거나 관심 있는 당사자들의 모임을 만들고 지원하는 일은 어떨까요? 가정용 물리치료나 재활 운동 기구도 있으니 같은 기구로 운동하는 동호회를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기초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장애인이나 노인이 당사자들끼리 또는 그 둘레 사람과 함께 꾸준히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추천하고 거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근린공원 뒷산 천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에게 “근처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운동하러 오시는 길에 가끔 함께 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어떨까요?

물리치료사의 시간을 조정하여 이런 활동에 투입을 늘리는 건 어떤지요.

#### ① 물리치료실 공간 활용 방안

물리치료사가 장애인·노인 혹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클럽, 자조집단, 의료봉사단을 구성하고 지원한다면 물리치료사가 없는 시간에도 치료실은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퇴근 후에 가족의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싶은 직장인도 있을 텐데 야간에 복지관 운동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게 도울 수 없을까요?

#### ② 의료재활 부서의 인력운용 방안

복지관의 직원이라면 치료업무에는 근무시간의 70% 정도만 투입하고 나머지 30%를 비워두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의료재활 관련홍보계몽이나, 협력 기관과 주민 조직 등을 지원하고 협의 조정하는 데 쓰면 어떨까요? 복지관에 치료사들을 꼭 두어야 한다면 그들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 2) 장애 아동 조기교육

직접 서비스 방식은 여러 명의 특수교사와 치료사, 많은 교실과 치료실, 비싼 교구와 장비, 이렇게 많은 인력 공간 예산을 투입합니다. 돈은 많이 들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없고, 사회통합에 해가 되기도 합니다. 중개 서비스나 보편적 서비스 방식으로 하면, 특수교사 한 명과 사회사업가 한 명, 그리고 방 하나면 됩니다.

지역사회의 각종 조기교육 기관 곧 유치원, 어린이집, 주일학교 유치부, 유아원, 놀이방에 제안하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교육청 구청에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들고 여러 차례 찾아가입니다.

방 하나는 교구 교안 교재 전문서적 따위를 공유하는 공간, 부모 모임 교사 모임이나 세미나 상담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장애 아동을 복지관 조기교육 서비스 이용자로 모집하여 지원하고 조기교육 기관을 협력 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각기 집 근처 협력 기관에 다니면서 종종 복지관의 상담 치료나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장애 아동이 집 근처에서, 복지관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 조기교육 기관의 장애 아동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여 여력이 생기면 일반학교 장애 학생 지원 사업, 장애 학생 방과 후 서비스, 입원 중인 장애 아동 지원사업도 해 볼 만합니다.

## 3) 목욕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동네 목욕탕을 정신·신체 약자나 노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절하게 만들 수 없을까요? 둘레 사람 목욕하러 가는 길에 가끔 함께 가게 주선할 수 없을까요?

집에서도 목욕할 수 있게 욕실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목욕 보조 도구나 용품을 지원할 수 없을까요? 시공 업체나 상품 정보만이라도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 4) 교통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나 외출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교통서비스의 핵심일까요?

콜택시나 외출도우미 서비스, 이것을 봉사단체나 공무원이 추진한다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활동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장애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관점,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사회복지사가 주력해야 할 서비스가 이런 것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장애인을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 도우려는 사회복지사라면, 지역 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자가운전자들에게 개입할 방법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때로는 동네 횡단보도나 지하철 입구, 버스정류장 등에서 캠페인을 하기도 하겠지요. 지하철공사나 운전 교육장도 찾아가겠지요. 편의시설 운동세력과 연대할 수도 있겠지요.

교통장애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려는 사람과 교통 환경간의 부적응이고 이것을 완화 혹은 해결해 주려는 노력, 즉 교통 서비스란 장애인과 교통 환경과의 적응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디에나 있고 보편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응대하는 방법이 바뀔 겁니다.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된 물리적, 사회적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 5) 생활체육

사회복지사라면 생활체육을 매개로 해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게 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둡니다. 체육 프로그램은 이를 위한 소재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온갖 체육동호회를 찾아다니고 운동시설을 찾아다닐 겁니다. 체육학과와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만나러 다니고, 사회체육 관련 단체들을 접촉할 겁니다.

예컨대 매일 아침 축구를 하는 조기 축구회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적장애인과 함께 축구를 해 보도록 주선하는 건 어떨까요? 동네에 조기 축구회가 여러 개 있으니 돌아가면서 하면 매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생활체육단체와 협력하거나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지도자로 참여시키는 건 어떨까요?

체육장애란 운동하려는 사람과 체육 환경간의 부적응을 의미하고, 이것을 완화 혹은 해결해 주려는 노력, 즉 체육 복지란 장애인과 체육 환경과의 적응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디에나 있고 보편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참조 : 정보원 카페 공동게시판 [5469](#)번 글 ‘재활사회체육운동’

## 6) 관광

대중교통, 관광버스 회사, 여행사, 철도, 관광지, 박물관 등의 관광 자원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자원으로 만듭니다.

관광장애란 관광하고 싶은 사람과 관광 환경간의 부적응이고, 이것을 완화 혹은 해결해 주려는 노력, 즉 관광 복지란 장애인과 관광 환경과의 적응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디에나 있고 보편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여행할 사람, 장애인이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 이런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따로 모집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장애인 당사자로 하여금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아 함께 신청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사람을 주선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웃에서, 상관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선해 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 7) 도서관

복지관에 점자도서관을 만들고 봉사자를 모집하여 점자책과 녹음도서를 만들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를 가르쳐준다?

일반 봉사자나 공무원이 이렇게 점자도서관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것

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어울리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로도서관처럼 공공도서관에 시각장애인 열람실을 만들고 점역이나 녹음도 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각장애인도 여느 시민처럼, 시민으로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 73.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원칙

#### 1) 선택할 수 있게

전체 아동을 한 프로그램으로써 아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나이나 관심이나 재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당사자인 아이들과 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 하게 합니다. 큰 프로그램이라면 기획단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자료를 찾아보고 돌레 사람에게 물어보고 서로 의논하여 기획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기획한 프로그램, 지역사회가 만든 프로그램, 사회사업가가 구상한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신청하게 합니다. 개별 상담을 통해 선택을 돕거나 조정합니다.

나아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정리하는 데도 당사자인 아이들이 주인 노릇 하게, 주체로 참여 기여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아이들이 이루고 누리는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합니다.

#### ※ 인력 부족?

당사자와 지역사회 가운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할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당사자인 아이들도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해 저마다 전공 지식 경험 취미 직업을 살려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개인이나 조직도 많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그렇게 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주면 됩니다. 모아서 소개하되 설명회도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준비 진행하게 돕습니다. 설명회를 계획 준비하고 진행하는 활동 자체가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종합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 2) 아이들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 ① 실제 생활이게 합니다.

체험 활동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게 합니다. 그 자체로 놀이가 되고 공부도 되고 생활 과업이 해결되게 합니다. 아이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게 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이들의 놀이, 교우, 청소, 정리정돈, 위생관리, 운동, 인사, 감사, 사과, 위로, 격려, 말하기, 듣기, 집안일, 읽기, 쓰기, 예습 복습 숙제 따위의 일상생활이면 좋겠습니다.

센터 공간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집과 학교, 어른들 일터, 산과 들과 시내, 마을 동네 골목에서 하게 돕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써 가르치기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생활 과업으로써, 배우게 합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섬 사회사업 게시판 [95](#)번 글

### ② 프로그램이 항상 새롭거나 특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항상 새롭거나 특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매번 새롭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 마땅히 해야 하고 누려야 할 아이들의 일상, 그 기본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함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새로운 것, 특별한 것, 재미있는 것을 탐닉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는 높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날마다 생활하고 관계하고 일하기를 바르게 하여 마땅히 나아갈 바를 밝히고 실천함이 곧 공부라 했습니다. 발전은 마땅한 삶에 다가가고 기본에 충실해짐이지 자꾸 새롭고 특별한 것을 좇음이 아닙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섬 사회사업 게시판 [853](#)번 글



### 3) 방학 활동

①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방학 활동 기획 준비 실행에 참여하게 합니다.

방학 활동을 기획 준비 실행하는 데 당사자인 아이들과 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주인 노릇 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두루 물어보고 모여서 의논 잘하게 돕습니다.

아이들이 의논하게 합니다. 자료나 정보를 얼마쯤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아이들 나름대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부모들도 자료를 찾아보고 모여서 의논 잘하게 주선합니다.

지역사회 조직도 각각 자신들의 일을 소재로 아이들을 만나게,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유익하고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활동을 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드립니다.

외부 도움이 필요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찾아 활용하게 돕습니다. 밖에서 다 준비해 와서 배풀어 주거나 대신 해 주지 않게 합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심사회사업 게시판 [853](#)번 글

#### ② 방학 활동 기록

아이가 참여한 활동, 그 과정에서 만든 문서나 작품, 자기소개서, 활동 계획서, 모집 안내문, 신청서, 활동 기록, 감사 기록, 발표회나 평가회 자료, 편지, 사진, 수료증을 모으면 보통 한 학기에 파일 한 권은 됩니다. 방학 활동만으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와 의논하여, 학교에 한 부 보내고 센터에 한 부 보관하고, 원본은 아이에게 줍니다.

## 74.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사례

박경희 선생님, 김동찬 선생님, 전효민 선생님, 최선웅 선생님, 이준화 선생님의 사회사업 기록에서 아동 청소년 활동을 발췌 요약했습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단기사회사업 게시판 [494번 글](#)

### 1) 평생학습(사회교육), 취미활동

문학, 노래, 악기, 춤, 운동, 요리, 등산, 사진, 공예, 철학, 예의·매너, 사교... 자료를 찾고 둘레 사람에게 물으며 스스로 배우거나 동네 어른을 선생님으로 모십니다. 어른들이 전공 직업 취미를 살려 이런저런 활동을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계획하고 모집하고 준비하고 배우고 나누는 데 아동과 어른이 함께합니다.

### 2) 설명회와 수료식

방학 활동도 학기 중 활동도, 당사자와 둘레 사람을 초대하여 설명회로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당사자가 제안하고 부모님이나 마을 어른이나 사회사업가가 제안합니다.

수료식 겸 발표회로 마칩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활동을 발표하고 배움 희망 감사를 나눕니다. 발표회 겸 수료식은 언제나 정겹고 신나는 마을 잔치입니다.

참조 : 방학 활동 설명회 기록 - 철암 [2023년](#) 겨울

### 3) 야영, 캠핑 : 숲 속, 호숫가, 강가, 계곡, 캠핑장...

자료를 찾아보고 두루 물어보고 의논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아동과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텐트를 치고 화장실을 만들고 캠프라이어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장비와 도구를 조달하고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먹고 치우는 일도 아동과 지역사회가 나누어 맡습니다. 야영에 온 마을 어른 아이 선후배 형 동생이 어울립니다.

#### 4) 여행, 순례

도보순례, 자전거 여행, 트레킹, 졸업여행, 지역탐방 순례, 진로 찾기 여행, 문학 여행, 역사 여행, 타 지역·기관·모임과의 교류 방문 여행... 정보를 찾아보고 둘레 사람에게 물어보고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모여서 의논합니다. 교통 식사 간식 숙소 사진 기록 회계 따위의 과업을 분담합니다. 여비는 둘레 사람에게 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격려 글과 함께 격려금을 받아 마련합니다. 용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 5) 하룻밤

복지관, 도서관, 펜션, 온천, 리조트, 친구 집, 할머니 댁에서... 몇 곳으로 삼삼오오 흩어져 또는 한데 모두 모여, 하룻밤 실컷 놀입니다. 아동 기획단이 장소 섭외, 프로그램, 식사, 숙소 따위의 과업을 나누어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방학 활동이면 두어 번 해도 좋겠습니다.

#### 6) 식사파티문화학교

한식 양식 중식... 식사 예절과 요리법을 공부하고 소책자를 만듭니다. 책을 찾아보고 동네 어른들이나 요리사들께 여쭙 봅니다. 잘한다는 데 가서 먹어 봅니다. 활동 발표와 수료회를 겸하여 파티를 엽니다. 둘레 사람을 초대합니다. 직접 요리하고 차리고 시중합니다.

#### 7) 길 위의 학교

지역 문화원이나 문화관광과에 여쭙고 자료를 구합니다. 책을 찾아봅니다. 둘레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런저런 정보 자료를 모아 검토하고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업을 분담합니다. 둘레 사람에게 격려 글 받으며 여행 경비를 마련합니다.

덕망 있는 어른, 문인, 예술가, 이런저런 직업인들을 섭외하고 찾아뵙습니다. 지리와 사람과 문화를 알아 갑니다. 자연을 소박하게 누립니다. 다녀와서 전화와 편지로 감사합니다.

#### 8) 책 한 권씩 들고 가족 이웃과 떠나는 독서 휴가

읽고 싶은 책 한두 권씩 들고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 갑니다. 산책하고 놀고 차 마시고 음악 듣고 책 읽고, 둘러앉아 좋은 문장 낭송하고, 도란도란 정겹게 이야기 나눕니다.

#### 9) 책 읽는 모임

주제나 책을 지정하여 읽고 와서 나누는 모임, 모여서 읽고 나누는 모임, 낭독하는 모임… 관련 장소나 사람을 찾아 여행하기도 합니다.

#### 10) 독서캠프

몇 가지 주제나 책을 정하여 각자 책을 읽고 와서 주제별 또는 책별로 모둠을 지어 나눕니다.

살아 있는 책, 사람을 읽습니다. 각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한 후 짝을 정하여 상대 이야기를 읽고 자기 이야기를 읽어 줍니다. 각자 1년이나 몇 년 후 또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 내고 싶은 자기 책을 기획하고 꾸며 봅니다. 그때가 되어 출판했다고 가정하고 가상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 11) 저자와의 대화

저자를 선정합니다. 그 분의 책들을 읽습니다. 책 이야기를 소재로 연극이나 놀이 따위의 활동을 합니다. 책에 나오는 동식물이나 물건 정보를 찾아보고 동네 어른들께 여쭙 봅니다.

저자를 섭외합니다. 책을 들고 마중 나갑니다. 잘 듣고 잘 묻습니다. 소박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모금함을 만들어 각자 낼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냅니다. 와 닿은 점, 재미있거나 유익했던 점, 배운 점, 고마운 점을 나눕니다. 엽서나 편지에 써서 드립니다. 배웁니다.

## 12) 동요 대회

가족 친구 이웃 어울려 동요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을 정자나 숲이나 공원에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달빛 별빛 아래, 피리 하모니카 불고 기타 바이올린 켜며 노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른 아이 동요 모임에서 기획 준비 진행하는 동요 대회, 동네 사람들이 소박하게 상품을 내놓고 등수 구분 없이 고루 나눕니다. 먹을 것 조금씩 가져와서 나눕니다. 동요 부르는 사람들은 순후할 겁니다.

## 13) 문장 낭송 대회, 동화 구연 대회

시 수필 실록 소설 동화 기행문 일기 수기 칼럼... 주제 또는 재료를 지정하거나 각자 선택하게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 오빠 언니를 출연자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들으며 맞장구치고 추임새 넣고 느낌 생각 나눕니다.

웅기종기 모여 앉아 듣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평상이나 난롯가에 둘러앉으면 절로 이야기꽃이 핍니다. 백과사전 국어사전 도감 지도 따위의 관련 문헌을 찾아보거나 토론 연극 실습 여행 같은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글 읽는 동네, 동화 익는 마을...

## 14) 요리

만두 쿠키 케이크 샌드위치 군고구마, 삼계탕 비빔밥 김밥 죽 수제비 냉면 라면 떡볶이 국수 화채, 온갖 간식, 온갖 떡, 유자차 매실차 생강차 모과차 효소...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고 먹고 나눕니다. 계곡에서 물고기 잡아 매운탕 끓이고 돌 달구어 고기 구워 먹습니다. 어디 가마솥 하나 걸면 정겨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 15) 벼룩시장, 알뜰시장

자료를 찾아봅니다. 여러 현장을 탐방하고 전문가에게 배웁니다. 장소를 물색하고 섭외합니다.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업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동네잔치처럼 진행합니다. 뒷정리와 감사 인사 잘합니다.

#### 16) 일상생활기술학교

취사 세탁 청소 설거지 바느질 못질 톱질, 아기 보기, 반려동물 돌보기, 화초 가꾸기, 텃밭 농사, 얼룩 지우기, 끈이나 줄을 묶는 요령, 만들기 고치기... 생활 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어른들께 여쭙어 봅니다. 이집 저집에서 각자 또는 여럿이 함께 배우고 실습합니다. 이렇게 찾고 배운 방식을 비교해 봅니다. 잘 정리해서 나눕니다.

#### 17) 마을 극장, 우리 집 극장

마을의 너른 마당이나 정자나 강당에서, 이웃집 거실에서, 가족 친구 이웃 어울려 영화 봅니다. 영화, 초대장 포스터, 스크린, 장비, 장소, 돗자리, 간식... 아동과 지역사회가 의논 기획 준비 진행합니다.

#### 18) 클래식 활동, 인문학 공부

문헌을 찾아봅니다. 클래식 좋아하거나 클래식 활동을 하시는 분, 좋은 음향기기 가진 분, 알아보고 섭외하고 찾아뵙습니다. 한 학기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활동합니다. 함께 감상하고 그 분의 클래식 음악과 추억과 삶 이야기를 나눕니다. 역사 철학 문학 공부도 이렇게 합니다.

#### 19) 생활체육, 보드게임

놀고자 한다면 배드민턴 탁구 볼링 같은 생활체육과 윗놀이 바둑 오목 장기 고누 오델로 체스 같은 보드게임도 좋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어른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 20) 개별 상담, 일대일 데이트

상담 공간을 꾸미고 그 아동을 위한 특별한 요리나 간식을 준비합니다. 활동 기록과 장점과 고마운 일을 정리합니다. 칭찬 감사와 장점 가능성 희망 이야기를 주로 나눕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합니다.

#### 21) 문화 관람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공연·전시장에 갑니다. 표는 각자 사거나 돈을

모아 공동구매합니다. 이웃이 표 값을 내 주거나 보태 주기도 합니다. 각자 또는 여럿이 함께 간식을 준비합니다. 이집 저집 차를 함께 타고 갑니다. 삼삼오오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합니다. 각자 표를 내고 자유롭게 관람합니다.

## 22) 소풍, 나들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갑니다. 집마다 도시락과 간식, 돛자리 따위를 준비합니다. 이웃이 좀 더 싸 오기도 합니다. 멀리 갈 때는 차비를 걷어 전세버스를 빌리기도 합니다.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이웃이 보태 주기도 합니다. 가서 삼삼오오 자유롭게 누릅니다. 도시락·간식을 펼쳐 놓으면 잔치 같습니다. 서로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 웃음꽃 피어납니다.

## 23) 크리스마스

모여서 카드를 만듭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와 축하 카드를 씁니다. 저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소박하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쌀을 모아 떡해서 성탄 축하 선물로 삼기도 합니다.

루돌프 옷과 뿔, 천사 옷을 만듭니다. 산타복은 구입하거나 만듭니다. 유모차와 개? 썰매? 선물 수레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료를 찾고 어른들께 여쭙어서 장식 소품 만드는 법, 종이접기나 풍선아트 따위로 장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 집을 장식합니다. 동네 가게 같은 곳에 두루 다니며 캐럴을 틀고 성탄 장식을 하게 부탁하거나 함께합니다.

동네마다 몇 명씩 짝지어 산타 루돌프 천사가 되어 자기 집 친구 집 동네 어르신 댁을 돌며 캐럴 부르고 안아 드리고 카드와 선물을 드립니다. 길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며 안아 드립니다. 참조 : 2023년 [철암](#) 사례

## 24) 송구영신

12월 31일 낮에 어른들과 만두소를 만들고 저녁에 모여 만두를 빚고 찌고 나눠 먹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둘러 앉드리거나 둘러 앉아 실리 평가 감사 평가! 아름다운 추억, 고마운 일, 잘한 일을 나눕니다. 서로

안아 주며 잘했다 고맙다 인사합니다.

구역을 나누고 몇 명씩 짝지어 마을 인사 다닙니다. 다녀와서 새해 바람을 나눕니다. 서로 안아 주며 축복해 줍니다. 타임캡슐에 넣어 보관합니다. 다음 송구영신 행사 때 꺼내어 읽고 나눕니다.

제야의 타종식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눕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일출을 보러 산에 올라갑니다. 내려와 함께 떡국을 먹습니다.

#### 25) 마을 세배

어른들께 여쭙고 책을 보고 세배 풍속을 공부합니다. 의논하여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인사드릴 어른들을 섭외합니다. 어른들은 덕담을 생각하고 선물이나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한복 입고 동네 골목 노인정 이 집 저집 세배하러 다닙니다. 안아 드리고 안아 주며 서로 축복합니다.

#### 26) 정월 대보름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고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께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계획을 세우고 과업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이집 저집 이웃 가족 친구와 부럼을 깨 먹습니다. 오곡밥 짓기, 나물밥 얻어먹기... 달맛이 줄다리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같은 전통 놀이와 이런저런 새로운 놀이로 남녀노소 어울려 놀입니다.

#### 27) 생활복지운동

“어울려 놀게 해 주세요. 골목에서 숲에서 흙에서...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과 어울려 놀게 해 주세요.” - 아동 기획단이 놀 곳을 확보합니다. 놀잇감을 찾아보거나 만듭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궁리하고 의논합니다. 동네 어른들께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 75.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

### 1)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눈높이도 사회사업가 눈높이에서 헤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설사 ‘아이들 눈높이’라는 게 있다고 해도 아이마다 다르고 같은 아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눈높이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으며 어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사회사업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지를 이루어 주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눈으로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아이의 눈을 알고 있을지라도, 아이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아이가 아이 자신의 눈으로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 2) 아이들 언어 행동 문화에 맞추어 아이들처럼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함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와 자리에 어울리게, 각자 자기답게 할 일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아이들에게 어른이고 사회사업가입니다. 어른답고 사회사업가답게 본연을 지키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사업가를 보며 배운 대로 어른이 되어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더욱 어른답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눈높이 아이들 문화에 맞추어야 하는지 맞출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따름입니다. 어른으로서 사회사업가로서 나이와 자리에 어울리게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 3) 마음과 태도

마음과 언어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잘되기 어렵습니다. 잘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곧 잊히거나 무너질 겁니다.

꾸민 말과 표정, 지식과 기술로써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귀하

게 대하지 않으면 잘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게 대하는지 아이들이 압니다. 아이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스스로 부끄러울 겁니다.

마음과 언어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귀하게 대하면, 아이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인생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사랑으로 남을 겁니다.

살아가다 문득 생각나는 선생님, 어른이 되어서도 알게 모르게 삶 속에 그 흔적이 묻어나는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서 받은 사랑, 귀하게 존중 받은 경험, 그 영향이 클 겁니다.

참조 : 섬할 게시판 [1242](#)번 글 ‘프로그램 행사 - 어떻게 하면 잘될까?’

참조 : 단기사회사업 게시판 [933](#)번 글 ‘나는 아이를 어떻게 만나고 싶은가?’와 [642](#)번 글 ‘아이들이 다들 때 어떻게 할까?’ 최 선생님 글 모음

#### 4) 아이에게 감사하기

아이의 착한 언행에 민감하게 칭찬 감사합니다. 아이의 작은 진보와 성장에도 민감하게 칭찬 감사로써 반응합니다. 아이에게 생긴 좋은 일에 감사하고 아이가 기뻐하는 일에 감사합니다.

짐짓 꾸민 말이나 상담 용어나 이벤트로 하지 않고 그저 보통 사람의 언어로 진심을 담아 소박하게 표현함이 좋습니다.

이유를 말해 주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고맙다고만 해도 족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보며 미소 짓는 표정 그 눈빛만으로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아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린 시절에 만난 사회사업가 선생님,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생각나서 나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원문 : 섬 사회사업 게시판 [1425](#)번 글

## 76. 학습지도

1) 경쟁을 돕는 일이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학습지도의 목적이 성적 향상에 있다면 조심스럽습니다. 이 아동 학습 지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질 다른 아동은 어찌할까요?

사회사업은 경쟁을 돕는 일이 아니라 공생을 돕는 일입니다. 경쟁을 돕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회사업가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2) 학습지도도 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학습지도는 아동을 만나고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날 수 있는 명분입니다. 학습은 아동의 실제 생활 과업입니다. 이리므로 학습지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 하되,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그대로 사회사업가답게 합니다.

예컨대, 동네에서 학년 구분 없이 몇 명씩 짝지어서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공부하게 도왔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각각 자기 필요와 수준에 맞게 학습 계획을 세워 준비했고 형 동생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하니 선생님이 가르쳐 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간식을 주시기도 하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당사자가 주인 노릇 했고 둘레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학습이라는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정겨운 사람살이가 생동했습니다.

가르쳐 줄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추천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습지도할 수밖에 없고 형 동생 친구들과 함께하는 방식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렇게 도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 77. 문제를 따돌리기

왕따 문제도 있었습니다. 도벽이 심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산만하여 학습이나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이 암담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담 치료 프로그램 따위로 건드리면 자칫 자존심 상하거나 수치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 있는 아이로 보거나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 꺼렸습니다.

적극적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변화와 선행에도 잘했다 고맙다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 참여 성취하는 경험, 함께 배우고 누리고 성장하는 경험,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경험, 인정 존중받는 경험, 칭찬 감사 격려받는 경험이 생겼습니다. 이는 문제를 희석시켜 버릴 만한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친구 부모님들과의 관계, 마을 어른들과의 관계를 살렸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막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복지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왕따 문제 도벽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친구 가족과 알게 되니 친구를 괴롭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 나쁜 짓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더 나은 재미와 감동과 행복을 맛보니 남을 괴롭히거나 흠치는 것이 시시해졌을 겁니다.

산만하던 아이가 절제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묻고 의논하니 조심하려 했을 겁니다. 아이의 강점 가능성을 찾아 잘할 만한 일 좋은 일로써 부탁하니 활력이 그쪽으로 쓰였을 겁니다.

암담한 가정환경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받은 경험, 자주한 경험, 인격적 경험... 이것이 문제를 이기고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원문 : 섬 사회사업 게시판 [2704](#)번 글

“어느 날 엄마의 씹지에서 일 전짜리 한 닢 꺼내어 눈깔사탕을 사 먹었다. 그렇게 매일 한 푼 두 푼 꺼내 썼다. 잘못된다는 의식조차 없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앞쪽에 있는 유리를 손으로 짚고 안쪽에 있는 상자 뚜껑을 열려다가 그만 유리를 깨트리고 말았다.

그 날 저녁 가갯집 식구들이 몰려와 변상을 요구하다 엄마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나는 그동안에 다음에 시킬 거짓말을 준비했다. 엄마는 의당 돈이 어디서 나서 군것질을 했느냐고 물을 테고, 그러면 길에서 주웠다고 대답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나에게 군것질한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

엄마가 만일 그때 나를 의심하고 따지고 들었으면 어떡하든지 진상을 규명했을 테고 그때 내가 맛볼 수밖에 없었을 수치감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나는 그 후 다시는 엄마 돈을 훔치지 않았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길에 떨어진 돈도 주운 적이 없다. 만약 그때 엄마가 내 도벽을 알아내어 유난히 민감한 내 수치심이 보호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견잡을 수 없이 못된 애가 되었을 것이다.”

박완서 장편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씹크빅, 3판 5쇄, 98~105쪽에서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 가운데 한 대목을 요약했습니다.

## 78. 지역아동센터 후원 봉사

1) 센터 아동들은 너무 자주 특별한 후원 봉사를 받습니다. 흔히 소외된 이웃, 불쌍한 아이들, 이렇게 낙인찍혀서 받습니다. 꺼림칙합니다. 구차히 받으려 하지 않을까, 품격을 잃어 가고 감사하는 마음조차 무디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후원이나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아동들과 의논합니다. 후원 봉사로부터 아동들을 지키는 겁니다. 받는 데 익숙해 지지 않게 합니다. 품격과 자존심을 지키게 합니다.

외부 자원이 필요하면 위원회 같은 아동 조직이 찾아 유치하거나 검토하여 받게 합니다. 센터 아동들이 일방적 시혜 대상이 되지 않게, 주인 노릇 잘하게 돕습니다.

### 2) 단기사회사업 (실습생) 면접

아동 당사자 면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면접위원들이 면접에 관한 책이나 영상을 찾아보고 어른들께 여쭙 보고 궁리하고 의논하여 면접을 준비합니다. 미리 지원자 한 명 한 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읽고 밑줄치고 메모하고 질문지를 만듭니다.

면접실과 자료와 대접할 음료를 준비해 놓고, 나가서 마중하고 안내합니다. 지원하고 찾아와 주어 고맙다 인사합니다. 정성껏 대접합니다.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진지하게 면접합니다. 지역사회를 두루 안내하고 아동과 지역사회의 강점을 알게 돕습니다.

이렇게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일에도, 아동이 주인 노릇 하게 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참조 : 철암 [사례](#)

## 79. 아이들이 사는 마을

1) 학교 마치고 센터로, 센터에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센터에서 프로그램하고 센터에서 놀고 센터에서 저녁 먹고...

안타깝습니다. 마을 동네 골목에 아이들이 있어야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식구인데, 같이 먹고 나눠 먹는 데서 인정이 사는데...

마을 동네 골목마다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른들이 미소 짓고 그렇게 아이 어른 어울려 사람 사는 것같이 사는 지역사회, 식구가 함께 먹고 이웃 아이와도 함께 먹는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이런 지역사회를 살리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런 관계와 소통, 정겨운 사람살이를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아동 복지 별천지를 만들기보다 지역사회가 아동 복지를 이루는 곳, 아동이 살 만한 곳이게 하면 좋겠습니다.

2)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마을 사람들을 주체로 세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되게 했습니다. 아이들과 둘레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린, 그들의 삶이었고 사람살이였습니다.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두루 상관하면서 복지 바탕을 기르는 일이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체 의식과 역량을 살렸고 지역사회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렸으니 이것이 바탕을 길렀다는 겁니다.

지역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복지가 흐르는 사회생태, 이런 복지생태를 바라고 씨를 뿌렸습니다. 혹 뿌리를 내리고 혹 싹이 나고 혹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지생태 그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2006. 3. 2 광활 섬활 합동 수료식을 마치고 쓴 글입니다.

## 80. 취약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수급자 따위의 조건으로 아동을 선별하여 취약아동센터처럼 운영해도 될까요? 출석률로 아동을 구속해도 될까요?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아동 중심의 회원제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니 하지만 세상에 그렇지 않은 아동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등록하여 월 운영일수의 70% 이상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마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타 시설을 중복하여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지역 아동’이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주선하고 거들어 줄 일입니다.

### 1) 정원과 비율

실제는 지역 아동 누구나 이용하게 하되 행정 문서에는 정원만큼만 등록하고 선정 기준에 맞는 아동을 일정 비율 맞춰 줍니다. 적격 아동이 부족하면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채웁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증빙서류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이리저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평소 아동과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왔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요식 행위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이 과정 자체가 사회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 2) 출석률

출석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을 만들고 그에 관해 아동과 합의하면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출석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 갈 만한 곳, 가고 싶어 하는 곳, 가야 할 곳, 견학·탐방·답사하기 좋은 곳, 자기 집, 친척 집, 친구 집, 가족의 일터, 학



교, 동네, 산, 바다, 강, 들, 놀이터, 도서관, 오락실, 서점, 논밭, 인터넷 같은 곳에서 하는 현지 활동, 재택 활동, 사이버 활동을 다양하게 개설해 두고, 아동이 센터에 안 오거나 못 오는 날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활동하고, 오는 날 출석부에 표시하게 하는 겁니다.

### 3) 서류와 실제

서류상 지역아동센터인 '1318 해피존'을 실제로는 지역청소년센터로 운영하는 것처럼, 법이든 지침이든 요구하는 대로 '서류는' 그렇게 만들고 실제로는 마땅히 여기는 바를 좇아 운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름 그대로 지역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 취약 아동' 따위의 낙인을 찍어 아동을 분류 분리하는 데 삼가 나서지 말고 방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 체제에 하수인 노릇 하거나 편승 가세해서는 안 됩니다.

## 81. 복지관과 시설

### 1) 구성 : 기관 + 시설

복지관 = 사회사업 기관 + 이용시설

시설(Institution) = 주거 시설(Residential Facilities) + 사회사업 기관 + 이용시설

### 2) 지원 대상

복지관은 주로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을 지원하고 시설은 시설 주택 입주자를 전담 지원합니다.

### 3) 지원 시간과 지원 과업

복지관은 주로 낮에 특정 복지를 이루는 일을 지원하고, 시설은 밤낮없이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지원합니다.

### 4) 지원 방법

복지관이나 시설이나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 5) 지역사회 복지기관 여부

입주자가 사회의 일반 수단으로써 여느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다면, 지역사회가 입주자도 살 만하고 입주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면, 시설도 지역사회 복지기관입니다.

복지관이 복지관에서 복지관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준다면,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면, 그런 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 82. 시설 정체성을 뒤집어 보기

시설 정체성은 ‘시설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생각입니다. 시설 사회사업 제대로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시설은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기관입니다.

1) 정부나 지역사회로부터 보조금, 지원 금품, 후원 봉사 따위를 받아서 입주자에게 전해 주는 전달체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달 기능을 아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로써 시설 기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수도권이나 수도권지 같은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2) 입주자를 대신하고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는 복지 대행업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지 대행업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설 기관이 대행업체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기능으로써 시설 기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 기관이, 사회사업가가, 이런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3) 보호 기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호 기능을 아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기능으로써 시설 기관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자를 사람답게 도우려는 사회사업가가 이런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시설 입주자를 두고 보호를 운운하는 것, 보호가 필요한 사안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시설 입주자 자체가 보호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시설 입주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입주자의 삶과 사람살이에, 입주자의 인권 실현에, 시설 사회사업에, 이보다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 83. 시설 관련 용어

#### 1) 거주자?

주거를 지원하면 입주자가 시설 외의 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설 거주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 2) 이용자?

① 집을 이용하는 사람? 호응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입주한 당사자의 집인데, 숙박 시설의 손님 같아 보입니다.

② 시설의 전용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

일반 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도움이 좋은데...

시설 이용자라고 하면 시설의 전용 수단을 이용하기 쉽고, 외인들도 으레 그런 줄로 생각하고 일반 수단에서 외면 배제하려 들지 모릅니다.

#### 3) 시설과 재가?

시설 주택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의 집입니다. 주택의 위치 규모 형태가 어떠하든,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든, 입주자의 집입니다. 시설 주택에 있음도 ‘재가’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예컨대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따위로 나누어 말할 수 없습니다.

#### 4) 지역사회 주택? 지역사회에서 산다?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시내에 있든 교외에 있든 그 동네 그 마을 그 지역의 어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공간이나 세간을 단독으로 쓰든 함께 쓰든, 한집 한방에 몇 명이 살든, 어떤 유형이든 지역사회 주택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시설 주택과 지역사회 주택으로 나누어 말할 수 없습니다.

시설 입주자도 지역사회에서 삽니다.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이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겁니다. 지역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를 이용하여 생활하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따라서 시설 거주와 지역사회 거주 또는 ‘시설에서 산다.’와 ‘지역사회에서 산다.’로 구분하거나 그렇게 대비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 5) 입소 퇴소?

수용소나 보호소 또는 훈련소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주택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입소한다 하면 당사자와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따라서 입주, 퇴거라고 하고 이사 온다, 이사 간다고 합니다.

#### 6) 주택 이름과 기관 이름

##### ① 주택 이름

사랑 나눔 은혜 은총 천사... 온정주의 느낌을 줍니다. OO원? 주택 이름으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OO마을, OO동네는 약자 집단 거주지, 계토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 이름을 개명하려면 입주자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공식 개명이 여의치 않으면 공문서용 이름과 생활용 이름을 달리합니다.

##### ② 기관 이름

OO집, OO빌라... 주택 이름에 가깝습니다. OO원? 직접 서비스 기관의 이름으로서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을 개명한다면 기존 이름으로 쌓아 온 사회적 가치도 고려합니다. 공문서용 이름 외에 약칭이나 별명으로 부르기도 좋겠습니다.

시설 기관은 시설 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지원사무소(지원센터)입니다. 그 조직의 장을 원장이라고 함이 타당할까요?

#### 7) 기타 용어

① 집에 다녀오다 → 미성년자라면 몰라도 성인이라면 예컨대 부모님

택, 고향집, 본가나 친정에 다녀온다고 함이 좋겠습니다.

② 시설에 오다, OO월에 오다 → OO빌라 301호, 아들 집, 딸 집, 형님 택, 동생 집, 친구 집, 학생 집, 교인 집에 오다

③ 면회 오다 → 보러 오다, 놀러 오다, 심방 오다...

④ 생활실 → 주택, 가구, 집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⑤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 온정주의 느낌을 줍니다. 사회사업 관계에 어울리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⑥ 원 가정, 원 가족 → 본가, 친정, 부모 형제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⑦ 보호자 : 입주자가 환자나 애 같아 보입니다. 부모나 가족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 8) 거주시설?

① ‘거주시설’이라 하니 주거 지원은 그 시설에 한정될 것 같고 ‘거주자’라 하니 그 시설에 거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주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거의 그 시설에서 지냅니다. 명절에 고향집 다녀오거나 집단 활동으로 외박하는 일 외에 다른 곳에서 지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주시설이라 하고 거주자라 하니 이렇게 불박여 살아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입주자의 주거를 시설 밖까지 넓혀 다양하게 지원하려는 생각이 오히려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주거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입주자는 그 시설에 불박여 살 수밖에 없으니 거주시설이 주거를 제한하는 시설 ‘거주제한시설’ 기능을 하게 되고, 거주가 고정되는 시설 ‘거주고정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거주시설, 거주자라는 용어를 꺼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꺼릴 뿐입니다. 주거 시설은 거주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여부를 가릴 때는 거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사회사업은 입주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시설 주택 곧 시설의 주거 시설뿐 아니라 시설 밖의 다양한 주거 시설을 활용합니다. 시설 주택

입주자라고 항상 시설 주택에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③ 시설은 주거 시설과 지원 기관의 결합체인데,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는 ‘지원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흐립니다.

시설에는 주거 시설 외에 업무 시설도 있고 이용 시설도 있는데, 시설이 다 주거 시설인 것처럼 그냥 ‘거주시설’이라 함도 온당치 않습니다.

## 9) 보호시설?

① 당사자의 삶이 ‘보호’라는 말에 묻혀 버립니다.

집단 프로그램 따위로 단체 생활 시키며 사고 나지 않게 보호 통제하려 들기 쉽고, 그래도 이상할 게 없고 오히려 당연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그저 연명하는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② 보호한다는 사람이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③ 성인이나 노인에 대하여는 보호한다 함이 꺼림칙합니다.

④ 당사자가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 따위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곳에 있거나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격이 떨어지고 구차해집니다.

⑤ 보호가 필요한 사람 사안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사람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양하는 것... 당사자에 대한 인식에, 당사자의 삶과 사람살이에, 사회사업과 인권 실현에, 이보다 나쁜 게 없습니다.

⑥ 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은 복지사업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주간센터라면 이곳 사회사업가는 낮 동안 당사자 개개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저마다 각각 자기 희망 계획에 필요에 따라 자기 생활을 하게 돕습니다. 이런 일에 어울리는 이름은 주간생활 지원센터나 주간활동 지원센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명이 어렵다면 이런 이름은 공문서에만 쓰고 실체는 주간생활 지원센터나 주간활동 지원센터 또는 주간센터 따위로 부름이 좋겠습니다.

## 84. 공동체 시설

### 1)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 생활은 사적 영역의 사적 행위에 가까운데 정부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줄 수 있을까요? 구성원이 노동을 해서 비용을 마련하든지 재산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연금이나 수당이나 기타 수입금을 출연하여 비용을 충당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 공동체를 위해 하는 일을 사회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느 구성원과 다르게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조직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해 왔을지라도 공조직으로 전환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면 공동체 생활의 좋은 점은 잘 살리되 또한 공조직으로서 사회사업 기관답게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미신고 시설 :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출처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67~69쪽 '다. 미신고 시설 관리'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공유주택, 임대형 기숙사, 원룸형 주택 따위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시설 주택 입주자를 세입자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대상을 세입자로 입주시킵니다. 보증금 및 월세, 생활비를 사실상 무이자로 용자해 주고 보증금 및 월세, 생활비로 회수합니다.

참고 :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 85. 가구 사회사업가

가구를 담당하는 사회사업가를 다른 직원들과 구별하기 위해 가구 사회사업가, 가구직이라고 해 봅니다.

생활지원팀, 생활팀, 사회사업팀, 일선 사회사업가, 직접 서비스 담당자는 가구직만의 호칭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비가구직도 저마다 그 고유 업무로써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가구직이 아니어도 사회사업하거나 직접 서비스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법과 지침에서는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라고 하는데 입주자를 지도 대상, 교육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꺼림직합니다.

## 86. 가구 사회사업가가 입주자에게 집중하도록

### 1) 결재와 공식 슈퍼비전

작은 시설에서는 가구 사회사업에 대한 결재를 한 명만 하면 좋겠습니다. 슈퍼비전도 ‘공식적으로는’ 결재자 한 명만 하면 좋겠습니다.

가구직에 팀장을 세우더라도 결재나 공식 슈퍼비전 같은 상사 노릇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 행정 사무만 더하여 가구 사회사업가들이 돌아가면서 맡아 봉사함이 좋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과 성향을 감안해야 하고 시설의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도 헤아려야 하니 쉽지 않겠지만, 가구 사회사업가가 입주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 2) 가구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모두 가구에 배치합니다.

① 어떤 일에 필요한 전담 인력이 없다고 가구직을 그 일에 배치하기보다 과업팀으로 대신함이 좋습니다.

예컨대 시설관리팀, 자원개발팀, 평가대응팀, 직원연수팀 따위를 직종 직급에 상관없이 구성합니다. 가구직도 때때로 과업팀 일을 합니다.

② 국장이 과업팀들과 협력하여 행정 사무를 총괄합니다. 다만 국장이나 과장급 비가구직이 가구 사회사업에 대한 결재와 공식 슈퍼비전을 내려놓으면 그만큼 역력이 생겨 과업팀을 만들 일이 적을 겁니다.

③ 가구 사회사업가가 과장 국장 따위의 행정직을 맡게 된다면 몇 년 봉사하고 본직인 가구 사회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제도권 시설에 요구하는 행정 업무가 가중되는 만큼 전담 인력을 따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되, 우선은 이렇게 함이 좋겠습니다.

## 87. 조력자

1) 근무 시간에 지원해야 하는 입주자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의 케어와 보호, 집단 활동 프로그램 외에 개별 지원까지 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봅니다.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라면 직원이 직접 입주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입주자와 함께하게 주선함이 좋습니다.

이들테면 입주자의 둘레 사람, 입주자 개인 전담 지원 조직, 입주자 개인 전담 실습생이 함께하게 주선하는 겁니다.

2)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하여 입주자를 개별 지원하게 주선할 때

①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자기 일상생활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하거나 조금 더하게 부탁드립니다.

운동 산책하러 갈 때,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갈 때, 시장 백화점 갈 때, 공연 영화 보러 갈 때, 학원 문화센터 도서관 갈 때, 놀러 갈 때, 구경 갈 때, 뭐 먹으러 갈 때, 투표하러 갈 때, 지역행사에 참여할 때, 교회 학교 직장 갈 때, 가는 김에 같이 가고 하는 김에 같이 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②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야 저마다 제자리에 충실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살이 바탕이 튼실해지고 복지도 자연스러워집니다.

## 88. 집단 활동 프로그램

시설 입주자는 단체 생활 시켜도 된다는 듯, 단체 생활이 이상할 게 없다는 듯 수시로 집단 활동을 벌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집단 활동을 아예 일상화하기도 합니다.

오래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줄 알거나 프로그램 잘하는 게 사회사업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입주자는 하릴없이 그저 무료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마냥 방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당사자의 삶’을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사자의 삶’을 살게 돕는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삶을 세우려는 의지나 열정이 없어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입주자 본인의 삶 ‘당사자의 삶’을 세우자는 뜻을 알고 당사자의 삶을 세우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그래도 집단 활동 프로그램 하고 싶을까요?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사는 모습에 감동한 적이 있다면, 그렇게 돕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았다면, 그래도 집단 활동 프로그램 하고 싶을까요?

## 89. 주거 지원의 필요성

### 1) 관계 지원의 결과

주거 지원은 사람답게 도우려는 사회사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입주자를 사람답게 도우려 하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 관계를 살리는 데 힘쓰게 됩니다. 관계를 살리면 활동 환경이 넓어져서 시설 밖 주거를 지원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 평범하게 한다는 사회사업 철학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과 같거나 비슷하게 합니다.

여느 사람은 직장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 살기도 합니다. 고향집이나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기도 합니다. 연휴 방학 휴가 때 다른 데서 얼마간 지내기도 합니다.

시설 입주자의 주거도 여느 사람과 같거나 비슷하게 합니다. 입주자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 3) 밀집 주거, 고정 주거의 문제

밀집 주거, 고정 주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다툼이나 도전행동 따위의 문제가 불거지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위축 침해되기도 쉽습니다. 분산 주거, 가변 주거로 바꾸면 이런 문제를 얼마쯤 해소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리므로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 4)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했는데 어떤 입주자는 사회사업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그저 시설에 불박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를 지원하지 않음이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인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참조 : 웰페어뉴스 ‘부작위에 의한 인권 침해’

## 90. 가변 주거와 고정 주거

가변 주거는 시설 주택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낼 수 있고 때에 따라 그 거처를 옮길 수 있는 주거입니다. 고정 주거는 거처가 시설 주택에 거의 한정되고 거처를 옮길 수 없는 주거입니다.

여느 사람의 주거는 대개 당사자의 욕구와 역량, 인간관계와 사회 활동에 따라 변합니다. 시설 입주자의 주거는 사회사업가가 주거를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달린 것 같습니다.

## 91. 원내 주택과 원외 주택

지원 기관의 주 사무소 주소지 안에 있는 주택을 원내 주택으로, 밖에 있는 주택을 원외 주택으로 약칭하고 설명합니다.

1) 원내 주택에는 많은 입주자가 한곳에 몰려 살기에 정서불안 짜증 산만함 도전행동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할 때 지역사회가 부담스럽지 않게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내 주택이 불편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고 원외 주택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인력 운용의 융통성도 떨어져 입주자 지원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원내에 남은 직원들의 근무 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야간근무 횟수가 증가하여 주간 활동 지원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 주택이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거나 이른바 ‘유닛’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설도 주간 활동을 지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정부가 동이나 유닛별 전담 인력을 특별히 더 지원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3) 원내 주택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다양한 주거 지원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가구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각 따로 생활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때때로 얼마간 다른 곳에서 지내거나 탄살림하게 돕는 겁니다.

4) 원외 주택이 있다면, 직원을 고정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입주자가 거주하게 합니다. 직원의 일부를 원외 주택에 고정 배치하면 원내 주택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야간근무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원외 주택 전담 인력을 따로 지원한다면, 직원이 많아서 몇 명쯤 야간근무에서 빠져도 야간근무가 주 1회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외 주택 전담 직원을 따로 고정 배치해도 괜찮겠습니다.

## 92. 주거 시설의 관리

1) 기관으로서 시설은 주거 시설의 관리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회사업 관점으로 보면 ‘관리 지원 기관’에 가깝습니다.

가구 시설은 대개 그 가구의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관리하게 돕습니다.

공유 시설은 입주자 총회나 대표자 회의 또는 입주자가 참여하는 시설 관리팀 같은 데서 의논하여 관리하게 돕습니다.

2) 지원 기관 주사무소의 주소지 밖에 주택을 마련할 때

① 그곳으로 이사 갈 입주자가 특정된 경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두루 알아보고 계약하고 살림 장만하고 이사와 고 집들이하고 관리하게 돕습니다.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시설 주택도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② 그곳으로 이사 갈 입주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체험홈을 마련할 때, 계획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입주자들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합니다. 입주자가 참여하는 과업팀에서 의논하여 집을 구하고 살림 장만하고 관리하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 93. 후원 봉사

1) 후원 봉사는 입주자의 격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불쌍하거나 무능하거나 열등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후원 금품을 전달하는 사진이나 봉사 활동을 하는 이야기가 널리 있다면 그 시설과 시설 입주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요? 그런 인상의 입주자가 그렇게 보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2) 후원 봉사 많이 받다 보면, 인간관계가 대상자로서의 관계 이상으로 확장되기 어렵고 사람 구실은 ‘불쌍한 사람 노릇’에 그치기 쉽습니다.

후원자나 봉사자와 대등한 관계로 평범하거나 더 나은 구실을 하기 어렵고 하려 들지도 않을 공산이 큼니다. 오히려 자존심 염치 체면 핑개치고 굽실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들기 쉽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들도 시설 입주자를 후원 봉사 대상자쯤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 요구 지원하기는 커녕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들기도 합니다.

3) 후원 봉사라고 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탁하거나 받는다면 이렇게 해 봅니다.

#### ① 입주자에게 필요한 후원 봉사

개인별 또는 호별 후원 봉사로 분산합니다. 되도록 입주자가 찾아 부탁하거나 입주자가 살펴 받게 합니다. 대신하여 부탁하거나 받으려면 입주자와 의논하여 심부름하는 모양새에게 합니다.

#### ② 기관이나 직원에게 필요한 후원 봉사

기관이 부탁하거나 받되 입주자에게 부작용이 없게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되도록 용처와 목표치를 특정하여 모금 모집합니다.

## 94. 연명과 삶

1) 자기 삶이랄 게 없고 그저 연명할 뿐이라면 산다 할 수 있을까요?

연명이라도 도와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도움이라도 누군가에  
게는 절실할 겁니다. 다만 사회사업가가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그냥 생존 연명이 아니라 삶이고 사람살이이게 하고 싶습니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산다 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  
다.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게, 하루라도 그렇게 살게 돕고 싶습니다.

2) 정말 오래 살기를 바랄까요?

가족은, 고도 중증의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나 형제가 그 몸으로 오  
래 살기를 바랄까요? 정말 그럴까요? 모든 가족이 그럴까요?

시설에 살다 사망하면, 사고로 사망하면, 마치 오래 살기를 바라기도  
했다는 듯, 시설에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잘 돌보겠다고, 보호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시설 ‘입소’를 안내하거나  
상담하고 그런 취지로 계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얼마쯤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살  
게 돕겠다고, 그렇게 시설 ‘입주’를 안내하거나 상담하고 그런 원칙에  
합의하여 입주 계약을 해도 그럴까요?

## 95. SRV와 노말라이제이션

### 1) SRV

사회적 구실을 가치 있게 하기입니다. 입주자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구실을 하게 돕는 겁니다.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어울려 살다 보면 그 관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을 사람 구실이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 입주자가 그런 사람 구실을 잘하게 돕습니다.

### 2) 노말라이제이션

평범하게 하기입니다.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처럼 복지를 이루며 살아가게 돕는 겁니다.

별나게 하면,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 인상을 만들거나 확대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상은 구실의 격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인상이 그런 사람에게는 가치 있는 구실을 요구하기는커녕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평범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환경 수단 방법 형식 따위를 평범하게 합니다. 의식주, 복식과 단장, 호칭, 인간관계와 사람 구실, 학교생활과 방학활동, 직장생활과 휴가, 취미활동, 집안일 따위를 평범하게 합니다.

### 3) SRV와 노말라이제이션의 관계

①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갈수록 더 나은 구실을 하게 합니다. 사회적 구실을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갈수록 덜 예외적이고 더 평범한 구실을 하게 돕습니다. 사회적 구실을 평범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은 구실 = socially valued role, valorized role

덜 예외적이고 더 평범한 구실 = normal role

SRV와 사회적 구실의 노말라이제이션, 그 실체가 같습니다.

다만 노말라이제이션은 사회적 구실만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점에서 보면 SRV는 노말라이제이션의 ‘일부’입니다.

② 입주자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구실을 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의 인상을 좋게 하고 역량을 강화합니다. 인상이 좋고 역량이 있어야 가치 있는 구실을 기대하게 되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평범하게 합니다. 노말라이제이션으로써 인상을 좋게 하여 가치 있는 사회적 구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말라이제이션은 SRV의 ‘방법’입니다.

## 96. 복장

1) 복장이나 외모는 개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나 시설에서는 마냥 그렇다 하기 어렵습니다. 입주자 본인의 자아상과 행동,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잘 차려입고 잘 단장하면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직원도 입주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언행을 삼갑니다. 외인도 입주자를 귀하게 보고 품위 있게 대합니다.

2) 직원의 복장 품행 언어도 중요합니다. 입주자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입주자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정하게 입은 직원이 입주자에게 품위 있게 말하면 입주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외인도 입주자를 대할 때 옷·몸·말 매무새를 가다듬게 됩니다.

3) 입주자와 직원의 복장이나 품행이 입주자의 자아상과 행동, 외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입주자가 하는 구실, 입주자에게 기대하는 구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설 입주자의 낮은 인상을 보정하기 위해서라도 입주자와 직원의 복장과 외모를 여느 사람보다 더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구실의 격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범하게 하자’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 더 좋게’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적극적 조치 또는 긍정적 차별이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97. 의료케어에서 생활케어로!

“의사나 간호사는 급성기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케어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안정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요법사는 마비된 손발을 치료하는 방법, 굳은 관절을 펴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비되어 굳은 관절로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케어 담당자들은 기존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 중략 -

케어 현장은 ‘환자’라는 수동적인 치료 대상 대신에 ‘생활의 주체’라는 새로운 인간상이 형성되는 곳이다.

- 중략 -

의사와 간호사는 주체가 되고 환자는 수동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 - 생명과 관련될 때는 그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이 아니라 노화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케어는 다르다. 환자에서 생활인으로, 의료케어에서 생활케어로! 노화나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여서 각자의 상태에 맞게 ‘생활’하게 하자.”

- 중략 -

T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6년 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했다. 그러나 매일 기능훈련은 빼놓지 않았다. 그래서 왕성한 훈련의욕을 생활의욕으로 바꾸기로 했다. 먼저 외출이라는 이름으로 꽃놀이, 1박 여행, 음주 등을 시작했다.

그러자 훈련으로 고통스러웠던 얼굴 표정이 생기 있게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손발이 마비되어도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 범위도 넓어지면서 신체기능도 좋아졌다.

「환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 그린홈, 2005년

구구절절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로 보고 치료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안정시키려 들기보다, 사람으로 보고 ‘생활’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글을 사회사업에 그대로 옮겨 읽어도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혁명」에서 일본과 유럽의 케어가 이렇게 달라 보였습니다.

일본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시켜 드렸습니다. 유럽은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우리가 거들어 드릴 테니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이렇게 ‘생활’하시게 도왔습니다.

「노인복지혁명」, 오쿠마 유키코,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프로그램 복지에서 생활 복지로 !

생활보다 프로그램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가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 개발하고, 준비 진행하고, 평가하고, 보고서 쓰느라 바빠 보입니다.

노인은 프로그램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더러는 전문적이라는 프로그램일수록 평범한 생활에서 멀고 자주성에서 먼 것 같습니다.

살아오신 환경과 사뭇 다른 곳에서 첨단 기구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드리는 연명시켜 드리는 생활은 너무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생존 연명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찍이 산림과 강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동물원에서 보호받으며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사육되는 동물 같다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당신이 살아오신 환경, 당신의 물건, 가족 친지 이웃 같은 당신의 인간 관계, 당신의 삶을 살려 그렇게 모시고 받들고 거들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당신 생활에 가깝게, 여느 노인의 생활에 가깝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에 사실 때와 너무 다르지 않게, 얼마쯤 다르더라도 여전히 당신이 주인으로 사는 삶이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시설의 프로그램보다 ‘당사자의 삶과 사람살이’가 더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복지에서 생활 복지로 !

노인요양시설 사회사업을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요?

원문 : 정보원 카페 공동게시판 [2279](#)번 글 2006.10.23



## 98. 기저귀

기저귀 차는 분의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얼마쯤 기저귀를 차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릴 수 있을 겁니다.

※ 밤에 화장실 다니시는 시어머니가 넘어져 다칠까 봐 잠을 잘 못 자던 며느리. “어머니, 밤에만 기저귀 차실래요?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저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저귀는 수면제예요.”

우선은 내가 차고 있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시어머니도 똑같이 기저귀를 차게 해 드렸다. 피부에 닿는 촉감과 배노 뒤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기저귀를 차고 주무시게 됐다.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니께 기저귀의 효과를 여쭙보았다. 시어머니는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신경 쓰지 않고 푹 주무신 것 같았다. 나도 푹 잤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기뻐하셨다.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90~92쪽, 하나리 사치코 지음, 최태자·심명숙 옮김, 2010년 도서출판 창해

다만, 되도록 기저귀를 쓰지 않고도 용변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한 장애 노인이나 치매 노인은 당연히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그런데 초보 케어 담당자들은 차츰 기저귀를 벗기고 침상에서 탈출시켰다. 기저귀 떼기는 안정을 강요하는 케어를 대신한 새로운 케어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진 케어 방법을 모아서 만든 것이 1988년의 기저귀 떼기 학회이다.”

「환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와 미요시 하루키, 그린홈, 2005년

우리 어르신들은 기저귀를 채울 수밖에 없을 만큼 치매 증폭 증상이 중하다고 핑계할지 모릅니다.

위 책 저자가 기저귀 떼기를 시도한 곳은 우리나라 치매·중풍 전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곳 ‘치매 노인이나 장애 노인’은 당연히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저귀를 뗄 수 있었던 건 노인의 자존감을 지켜 주려는 정신이었다고 봅니다. 결코 우리 시설 노인들보다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인복지혁명」 저자는 유럽 노인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몸져누운 노인이 없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손님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방이 따로 있고 거기에 몸져누운 노인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의 심할 정도였습니다.

1985년에 아사히신문 논설에 “일찍이 고령사회에 들어선 국가에는 ‘몸져누운 노인’이라는 낱말이 없다. 일본에서는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들도 그곳에선 휠체어에 타거나 보행기를 이용해 걷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일본 노인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 뭔가 잘못 알고 있든지 어떤 조작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쪽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여주었든지 아니면 보는 사람이 구석구석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치매·중풍 전문요양시설 노인들은 치매 증폭 증상이 중하여 기저귀를 채우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같이 말할 것 같습니다. 기저귀 떼기 학회 회원들이 도운 노인들의 상태는 경증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공동게시판 [2279](#)번 글 2006.10.23.

## 99. 사례관리 사업의 용어, 쉬운 말 찾기

당사자나 돌래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사례니 사례관리니 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봅니다.

### 1) 사례

당사자의 어떤 일 곧 당사자의 어떤 복지 또는 이런저런 복지들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일’을 특정하여 말함이 좋겠습니다.

### 2) 사례회의

당사자의 ‘그 일’에 관해 도와줄 만한 사람들과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함께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 3) 사례관리

당사자의 ‘그 일’이 잘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 4) 사례관리 사업, 사례관리 서비스

당사자의 ‘그 일’이 잘되게 전담하여 거들어 주는 일입니다. 전담 지원 서비스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 5) 사례관리 사회사업가

당사자의 ‘그 일’이 잘되게 전담하여 거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전담 지원자, 전담 직원, 담당 복지사 따위로 불러도 좋겠습니다.

## 100. 사례관리 사업의 배경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스스로 찾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원조차 잘 모르거나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례관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에는,

1) 당사자와 지역사회 쪽 자원은 대개 스스로 찾아 활용했습니다. 둘째 사람이 알아서 제공 또는 주선했 주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 복지기관이나 정부 쪽 자원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상당 기간 집중하여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사정이 달라져서 사례관리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례관리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사례관리 사업의 다른 배경

① 사회사업가나 복지기관이 정체성의 위기를 만날 때면 전문성이나 차별화나 고유 영역이니 하면서 무언가를 내세우곤 하는데 사례관리 사업도 그렇게 뜨지 않았나 싶습니다.

② 정부, 특히 지자체는 민간 복지기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대부분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이고 주민에게 가는 건 적다, 주민의 복지 체감도가 낮다, 관의 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 사업은 민간 자원까지 활용하여 관의 이름으로 돕는 일이라 관의 치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서비스 누락 중복도 얼마쯤 해소할 수 있다 하니 행정으로 챙기고 싶었을 겁니다.

③ 정권이 바뀌거나 복지 문제가 크게 불거질 때 전달체계라는 걸 개편하여 그럴듯한 간판을 달곤 하는데 사례관리 사업도 그렇게 보입니다.

## 101. 사례관리 사업 수행 기관

직접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면서 사례관리 사업까지 한다면 담당 서비스 또는 그 기관의 자원이나 잘 활용하게 돕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서비스에 충실해야 하는 작은 기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역아동센터, 교육복지학교, 장기요양기관, 활동지원사 중개 기관, 자활센터, 직업재활기관에서 본 사업과 사례관리 사업을 겸하여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데서는 대개 본 사업만으로도 벅칩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하면 서 본 사업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설피게 사례관리 사업까지 직접 하려 들지 말고 본 사업이나 잘할 일입니다.

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더러 다른 곳의 자원 활용까지 도와줄 수 있으나 자주 할 일은 아닙니다. 책무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사례관리 사업까지 해야 한다면 그만큼 본 사업을 줄이거나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시설은 입주자 개별 지원이 곧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 사회사업 자체가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른 곳의 자원 활용까지 돕는 겁니다. 오히려 시설의 자원을 피하고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자원을 주로 활용하게 돕습니다. 주간센터도 시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복지관이라도 정체성과 역량에 맞게 얼마쯤 한계를 둡니다.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를 한정하는 겁니다.

특히 전문적 상담 치료나 정부의 공적 지원이 ‘우선 또는 주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을 이용하게 추천하고 그쪽 사례관리 사업에 보조하는 수준으로 참여하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 102. 사례?

1) 관리 대상 사례 곧 ‘사례관리’라는 용어 속의 사례는 당사자의 어떤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주로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일시적 노력이나 한두 가지 자원으로 될 일을 ‘관리’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2) 사례관리 사례는 사례를 관리한 사례입니다. 사회사업에서 이 사례는 당사자의 일 또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일입니다.

3) 사례관리 사업 사례는 사례관리를 도운 사례입니다.

일반 사회사업 사례와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한두 가지 자원을 증개하여 도운 일은 일반 사회사업 사례에 가깝습니다.

4) 사례관리 사회사업의 사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사례를 관리하고 더불어 살게 도운 사례입니다. 사회사업가의 일입니다.

5) 사례관리가 사람을 관리하는 일일까요? 당사자에게 ‘당신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가리켜 ‘몇 사례’, ‘적정 사례 수’, ‘이런 사례’라고 함이 민망합니다. 몇 명, 적정 인원, 이런 사람이라고 함이 좋겠습니다.

6)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 일이 사례관리 사업의 사례일까요?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도왔다면 사례관리 사업의 사례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도왔다면 사례관리 사업의 사례일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사례일까요?

관리 대상 사례가 복합 사례라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한 가지 자원만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 일도 사례관리 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주거 환경 개선을 직접 돕는 건 뭐라고 할까요?

직접 도울 수밖에 없거나 직접 돕는 편이 최선인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도운 일을 사례관리 사업의 사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자원 노릇이 아니라 자원을 중개하는 일입니다.

### 103. 사례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 조사

1) 시설 입주자, 지역아동센터 아동, 주간센터 회원, 학교의 교육복지 대상 학생, 자활센터 참여자, 정신보건센터 회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로 선정 하면 어찌될까요? 자기를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생활을 속속들이 조사당하고 심지어 치부까지 파헤쳐진 대상자와 그의 문제를 알게 된 사회사업가, 이제 서로 어떤 낯으로 대하며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당사자의 자존심이나 체면은 어찌되며 둘레 사람과의 관계는 어찌될까요?

2) 기관의 기존 대상자라면, 뭘 또 조사해야 할까요? 전에 조사했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묻지 않아도 알 만한데,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특별히 더 조사해야 할까요?

부득이 다시 더 조사해야 한다면 당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서 정보를 수집할 때도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3) 안전 문제, 건강 문제, 일상생활 유지 문제, 가족 관계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직업 문제, 생활환경 문제...

이렇게 온갖 문제가 있을 거라는 듯 속속들이 파헤치는 질문, 도와주려고 묻는대지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이것도 문제인가, 난 괜찮은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이런 것까지 캐묻지? 다 해결해 주려고? 써먹지도 않을 걸 왜 묻는 거야?... 가슴에 한바탕 폭풍이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들이대는 무례를 경계합니다.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 꼭 없애야만 하는지, 없앨 수 있는지, 문제만 없어지고 부작용은 없을지, 신중히 헤아려 자신 없으면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처지 역량 기회비용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를 물으면 문제가 커지고 욕구를 물어도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물으니 정말 그런 사람 인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뒷감당은 어찌할까요?

4) 뭘 원하느냐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느냐고?

뭘 해 줄 수 있는데?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뺏어야지, 사람 봐 가면서 말해야지, 원하는 걸 묻는다고 진짜 원하는 걸 다 털어놓는단 말입니까? 사람 가리지 않고 아무 어려움이나 다 토로한단 말입니까?

눈치 없다, 자존심도 없다, 비굴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니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닐까요?

5) 개인사나 가족사, 어디까지 털어놓지? 뒤탈 없을까?

비밀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록한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지 모릅니다. 어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나 가족의 이야기를, 좋은 일로 묻는 것도 아닌데, 묻는 대로 있는 대로 외인에게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다니 얼마나 구차합니까?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삼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회사업가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6) 지금 물을 만한 것만 묻고 차차 보완해 갑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헤아려서 물을 만한 때에 묻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정보라고 다 써넣을 건 아닙니다.

사례관리 사업 사례에 당사자의 둘레 사람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글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당사자 일방의 이야기라 사실이 아닐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는 정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정보, 이런 정보는 써도 될지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신중히 헤아려 봅니다.

#### 104. 타 기관이나 제삼자가 대상자를 의뢰할 때

1) 타 기관이나 제삼자가 대상자를 의뢰할 때 당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묻지 않습니다. 알려 주더라도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회사업가의 이름 소속 직책 전화번호와 하는 일을 알려 주어 당사자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좋을지 물어보게 합니다.

2) 사례관리 당사자의 둘째 사람이,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당사자의 어떤 문제를 기관에 알려 조치를 요구할 때, 담당 사회사업가가 그 문제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도 될까요?

## 105. 사례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위주로 선정합니다.

문제만 보고 선정하면 십중팔구 해결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공산이 큽니다. 여러 기관을 거쳐 온 문제, 오래된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사업가만 애매히 부담감 무력감에 시달릴 게 뻔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해도 기회비용이 클 겁니다.

그래도 돕기로 한다면, 한계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자 합니다.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그대로 돕는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사례관리 과정에서 주체 의식과 역량, 사회성과 관계망이 살아나고 이해 존중 지지 격려 칭찬 감사 받는 경험이 쌓여,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이야기 들어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 106. 사례회의

### 1) 주최 주관

사례와 사례관리는 당사자의 일입니다.

사례회의도 당사자의 일입니다. 당사자가 자기의 어떤 사례에 대해 여러 관계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당사자가 주관해야 하고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회의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주관하더라도, 당사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함께 의논하고 당사자를 응원 격려 칭찬 감사하는 겁니다.

당사자 없이,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사례회의를 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헛수고가 되기도 하고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회의 결과를 당사자가 동의 수용하지 않으면 회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도우면 당사자가 저항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내맡겨 버릴 수 있습니다.

### 2) 사례회의?

보통은 그냥 당사자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되는데, 당사자가 두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게 도우면 되는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두루 알아보고 의논하게 도우면 되는데…

한두 명이나 몇 명씩 따로 만나 그냥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으면, 여럿이 모여 의논할 수는 있겠습니까만…

여느 사람은 여럿이 모여 의논하더라도 사례회의라고 하지는 않는 데… 개인적인 일에 사례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니 무슨 큰일 난 것 같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요?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필요하면 사례회의의 실적으로 꾸며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사례회의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107. 사례회의에서 도지곤 하는 고질병

당사자 없이 사회사업가 쪽 사람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당사자를 소외시키는 악성 복지병입니다.

둘레 사람을 버려두고 직접 도와주거나 후원자 봉사자를 동원하려 합니다. 당사자 쪽 강점을 버려두고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찾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해치는 악성 복지병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첫째, 사회사업에 내재하는 위험, 특히 ‘불평등하기 쉬운 관계’를 경계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를 아래로 대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당사자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둘째, 사람다움을 좇아 ‘성의정심’합니다.

사람답게 도우려는 뜻,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도우려는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 뜻대로 당사자를 세우는 데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를 대상화하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들이대기 쉽습니다. 복지를 이루어 주는 사람인 양 전문가인 양 행세하기 쉽습니다.

## 108. 조사 사회사업

### 1) 사례 1

대학생 20명이 2001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재활원 둘레 1024가정을 방문하여 336가정에서 면접했거나 응답지를 회수했습니다.

재활원 입주자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예시하며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후원자나 봉사자가 아니라 그저 동네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거나 공유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하고 이런 일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연락처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64.4%가 참여하고 싶다 했습니다.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98%나 됩니다. 잘 몰라서, 너무 큰 시설이라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계기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면접 조사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조사로써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의와 잠재력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재활원 입주자와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인정이 오가는 지역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 결과를 실무에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의 연락처까지 있었으니까요.

오래전에 대학생들이 한 일이지만 지금 사회사업가의 일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설계부터 보고서 작성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입주자와 동네 사람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참조 : 정보원 카페 공동게시판 [5682](#)번 '강집 조사'

## 2) 사례 2

2001년 설 명절 어느 장애인시설. 그저 여느 사람처럼 설을 쇠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집에서 세배도 하고 윗놀이도 하고, 나들이도 했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가 세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동네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재활원 홍보물과 설 명절 계획서를 들고 동네 50가구를 방문했습니다.

“입주자 한두 명씩 찾아가 세배하고 음식을 나누게 하고 싶습니다. 여느 가정의 설 풍경처럼 설을 쇠게 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곳입니다. 102호 철수 씨를 초대해 주십시오. 102호 철수 씨네 집에 놀러 오십시오.”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막상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보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령도 생겼습니다.

다섯 가정이 호응했습니다. 설날에 놀러 오라고. 다섯 가정. 오백 가운데 다섯이니 많은 건 아니지요. 이런 시도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이쪽에서도 갈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는 것이니 인선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선 후에는 설 인사법과 식사에절을 익히게 해야 했고, 복장도 갖추고 선물도 준비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가정이 결코 적다 할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입주자 다섯 분이 다섯 가정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설을 쇠었습니다. 집에서 세배도 하고 윗놀이도 했습니다. 나들이도 했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가 세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495가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이라 선뜻 응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명절이라 부담스러웠을지 모릅니다. 명절 준비로 바빠서 대답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가정들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 일은 헛수고였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와주려는 분이 많았습니다. 후원금을 주시는 분도 있었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렵פות하게나마 알게 되었고 가능성을 보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없었더라도, 지역사회에 두루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 일 자체가 분명 사람들의 복지 본성과 인식을 깨워 지역사회 복지 바탕을 일구어 가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십중팔구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소수를 상대하는 일이라 열에 한둘만 호응해도 넘칩니다.

십중팔구에 쏟은 노력이 쓸데없는 일도 아닙니다. 이번에 호응하지 않은 사람도 다음에 만날 때는 이야기하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번에 도와주지 못함을 미안해하며 다음에는 어떻게든 도와주려 할지 모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데 호응하지 않거나 못하는 지금 그 사람의 생각 처지 형편을 헤아려 존중하고 알아줍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다듬습니다. 다음에 다른 일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보기로 합니다. 때가 있을 겁니다. 맞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다면 먼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겠습니다. 되도록 고향집에, 가족 친척에게, 다녀오게 돕겠습니다. 입주자 개인이나 호별로 설을 어떻게 지낼지 계획하고 준비하게 돕겠습니다.



## 109. 욕구 조사

1) 사회사업가 쪽에서는 처지와 역량을 헤아려 물을 만한 것이나 묻고 당사자 쪽에서도 묻는 사람 봐 가면서 적당히 대답하는데, 당사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나 절실한 욕구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2) 문제를 물으면 문제가 커지고 욕구를 물어도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물으니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문제나 욕구를 물어서 뒷감당은 어찌할까요?

3) 문제나 욕구를 물으니 해결해 줄 줄 알고 잘 대답해 주던 사람들이 차츰 사회사업 조사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시큰둥해집니다. 문제나 욕구를 묻는 조사에는 성의 없이 대충 응답하게 됩니다.

정작 필요한 때 성실한 응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나 욕구, 조사까지 해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조사 나름이겠지만, 사회사업하는 데 문제나 욕구 조사가 그렇게 필요 한지, 기회비용보다 큰 효용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5) 지금 필요한 강점과 자원,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과 자원, 실무에 바로 활용할 정보를 위주로 조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저런 강점이나 자원이 있는지, 이런저런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어떤 조건이나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정보를 어떻게 알려 드리면 좋겠는지 묻는 겁니다.

6) 욕구를 묻는다면

① 무엇에 대한 욕구인지, 대상을 특정 또는 구체화하여 묻습니다.

기관의 정책과 형편, 사회사업가의 권한과 역량,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 따위를 헤아려 대응할 만한 것들을 예시합니다.

② 사회사업 근본에 부합하는 선택지를 예시합니다.

예컨대 목욕 욕구라면, 목욕탕 함께 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욕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조하면 좋겠다. 신체 기능에 맞는 목욕 도구와 용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③ 잘 알고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 대안을 제시하되 각 대안을 설명하거나 참고 자료를 소개하고, 시간 장소 비용 교통편 방법 같은 정보를 최대한 제시합니다. 그냥 욕구만 물으면 응답률과 실제 참여율·이용률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110. 기획서 항목

1) 필요성, 목적, 목표, 원칙, 사업 내용,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예산 계획을 포함합니다. 미래상이나 시나리오, 평가 계획을 넣기도 합니다.

2) 필요성에서는 기존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다고 볼 만한 대책 또는 이번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사업 원칙에 밝힙니다.

3) 기대 효과는 목적 목표나 미래상과 중복되니 따로 쓰지 않습니다.

4) 기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신규 사업이나 외부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처럼 특별한 일이 아닌 한 대개 ‘사업 내용’만 써도 좋습니다.

필요성 목적 목표 원칙은 대개 상위 범주나 기관의 그것들 또는 사회사업 근본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서 특별히 따로 또 밝혀야 할 만큼 실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생략합니다.

## 111. 기획서 다듬기

### 1) 목적

본 프로그램은 OO구에 거주하며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자 가정의 조모에게 초점을 두어 상호지지와 개인 양육 능력 지원을 통해 가족의 상실된 역할과 기능을 보완, Empowerment를 강화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가족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 방법 목표 목적이 섞여 있습니다. 다른 건 빼고 목적만 남기되 하나씩 나누어 써 봅시다.

목적 1 :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한다.

목적 2 : 가족 기능이 강화된다.

② 타동사형과 자동사형이 섞여 있습니다. 통일해 봅시다.

목적 1 :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 개발

목적 2 : 가족 기능 강화

③ 두 목적의 급이 다릅니다. ‘잠재능력 개발’은 ‘기능 강화’를 위한 수단 즉, 하위 목표나 계획에 해당합니다. 하나를 뺍시다.

목적 : 가족 기능 강화

목적에서 ‘조모에게 초점을 두어’ 라고 밝혔듯이 실제 이 사업에는 조모 대상 계획만 있고 손자녀 대상 계획이 없습니다. ‘가족 기능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고 일부에 치우쳐 있습니다. 계획을 추가하거나 목적을 줄여야 하는데, 목적을 줄여 봅시다.

목적 : 조모의 손자녀 양육 기능 강화

### 2) 목표

① 목표 1 :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과 조부모의 자아 효능감을 향상한다.

a. 계획인 ‘~을 통해’는 빼고 목표만 쓰되 하나씩 나누어 써 봅시다.

목표 1-1 : 조모의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감

목표 1-2 : 조모의 자기 효능감 향상

b. 여기 ‘조모의 자기 효능감 향상’ 목표와 위의 ‘가족 기능 강화’ 목적 사이에 위계를 따져 봅시다. 어느 것이 위에 있어야 합니까?

② 목표 2 : 조부모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며,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의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

a. 하나씩 나누어 쓰되 명사형으로 통일해 봅시다.

목표 2-1 : 조모의 긍정적 역할 강화

목표 2-2 : 조모 개인의 역량 강화

목표 2-3 : 가정의? 조모의? 생활 만족도 제고

b. 세 가지 목표가 동급이 아닙니다. 역량 강화 → 역할 강화 → 생활 만족도 제고, 이런 순서로 위계가 높아집니다. 더구나 여기 ‘생활 만족도 제고’ 목표는 위의 ‘가족 기능 강화’ 목적보다 상급입니다.

목표 1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 2를 달성해야 목표 1이 이루어질 텐데, 같은 단계에 나열할 수 있습니까?

③ 목표 3 :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자원망을 활용한다.

목표 1이나 2와는 급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목표라기보다 수단에 가깝습니다. 원칙·방침 편이나 계획 편에 넣는 편이 좋겠습니다.

## 112. 기획서 예시 : 복지 서비스 정보화 사업

### 1. 필요성

- 1) 복지 서비스 정보화 수요
- 2) 복지 서비스 정보화 현황
- 3) 기존 사업의 한계

### 2. 2010년 미래상

### 3. 4. 6. 목적, 목표, 사업 내용

목적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생산과 유통		
목표	복지 정보·서비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생산·공급 기반 강화	시민 복지 활동 활성화
계책	- 복지종합상담시스템 구축 - 복지정보검색시스템 구축	-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전문가 커뮤니티 구축	- 자원봉사자 후원관리 시스템 구축 - 시민 복지 동아리 지원
대상	복지서비스 수요자	복지서비스 공급자	일반 시민

### 5. 원칙·방침

기존 사업 한계 극복 방안, 이 사업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 7. 관리 운영 방안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원문 : <http://welfare.or.kr> → 복지경영 → '[복지정보화](#)'

2001년 2월 기획서입니다. 기획서 쓰는 법에 맞게 썼는지, 특히 필요성 목적 목표 계책 사이에 정합성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기 표에 요약한 목적 목표 계책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 113. 공모사업과 지원신청

#### 1) 공모사업

① 지나치게 문제 중심 사업으로 몰아갑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술하게 요구하곤 합니다.

당사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기 쉽습니다. 함부로 문제라 규정하고 전문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범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②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 재화를 얻어다가 그 재화로 또 사람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환자 만들어 약 동냥하고 그 약으로 병을 키우거나 다른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③ 기회비용이 큼니다.

a. 지원금 총액이 기획서 쓰는 데 드는 현장의 총비용보다 클까요? 선정되지 않으면 허비한 시간을 누가 어떻게 배상 별충할까요?

b. 사회사업가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심신의 기운과 시간을 지나치게 소모합니다. 관련 업무에 쓰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공모사업 정보 파악, 지원신청서 작성, 지원금 받고 쓰고 뒤처리하기, 평가 대비 감사 대비 서류 작업 따위로 '너무' 바쁩니다.

c. 매양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고 경쟁을 부추겨 결국 사회사업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사업 발전을 왜곡 방해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④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 당사자와 지역사회 복지 바탕을 해치기 쉽습니다. 당사자가 개발 유치 활용하면 부작용이 덜할 수 있으나 사회사업가가 그러면 위험합니다.

⑤ 뒷이야기 : 사업의 필요성만이라도 제대로 밝힌다면, 사전 사후 평가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로써 꽤 많은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연구자들이 흔히 그런 기획서나 보고서로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 2) 지원신청

### ①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합니다.

기획부터 신청까지 당사자가 하게 돕거나 당사자와 함께 진행합니다.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며 진행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있는데도 당사자 모르게 또는 당사자의 참여 없이 사업을 만들어 외부 지원을 신청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 ② 당사자의 자존심 체면 품위가 살게 기술합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쓰면 자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하여 누가 보아도 떳떳할 수 있게 씁니다.

### ③ 뒷이야기

#### a. 허구한 날 지원신청과 사업 포장에 매달리는 모습이 민망합니다.

도박장인지 포장업소인지, 지원 금품 농칠세라 베풀하기 바쁘고 남에게 뒤질세라 사업실적 꾸며 맞추기 바빠 컴퓨터에 제사 모시듯 하고 앉아 있으니 대화는 고사하고 인사하기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어디서 뭐 주는 거 없나 해매고, 찾으려면 받을 만한가? 신청해 볼까? 궁리하느라 시간 잡아먹고, 그 기준에 맞추어 사업 만들고 지원신청서 쓴다고 시간 잡아먹고, 지원 금품 수령한다거나 교육받는다고 시간 잡아먹고, 사전 사후 평가한다고 시간 잡아먹고, 증빙자료 챙긴다고 시간 잡아먹고, 평가 대비 감사 대비 사업 포장하느라 시간 잡아먹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함께 있어 주고 이야기 들어 줄 시간이 없습니다.

#### b. 지원신청 꼭 해야 할까요?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당사자의 강점과 지역사회 자원이 움직이는데, 그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걸 버리고 외부 지원에 매달려야 할까요?

동냥하려다가 추수 못 보는 꼴 아닌가 싶습니다.



#### 114.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고칠 점

평가회에서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고칠 점을 다루면 기운이 빠지거나 분위기가 나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만큼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나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면, 대안이 없거나 새로울 게 없다면,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실익이 없다면, 아끼는 마음 ‘사랑’이 아니면,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잘되지 않은 점은 대개 담당자 스스로 압니다. 이미 받은 지적 책망 비판이나 충고 조언 따위가 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마치고 하는 내부 평가회에서는 비판이나 충고 조언 따위를 삼갑니다. 그런 건 기획할 때나 실행할 때 따로 만나서 함이 좋습니다.

평가회에서는 비판이나 충고 조언 따위의 충동을 꼭 누르고, 칭찬 감사 응원 축복으로 화답함이 좋습니다. 배우고 다듬고 성장하는 데 이려는 편이 더 유익합니다. 동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 115. 사업별 워크숍

사업을 세분하여 한 번에 한 가지씩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1) 담당자의 발제

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어떤 성과와 배움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잘 발휘되었거나 발견한 자기 강점을 이야기합니다. 기관과 동료,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까지 나누면 더 좋습니다.

②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강점을 어떻게 살려 쓰고 싶은지, 희망이나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 2) 동료 슈퍼비전

① 발제를 듣고 알아주거나 세워 줄 점, 칭찬 감사할 점을 찾아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경험 지식 정보, 발전케 할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② 저마다 자기 생각을 낱말 한두 개로 적어 봅니다. 그 낱말을 실마리로 삼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점이 좋아 보인다, 이걸 이런 의미가 있다, 이 강점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어떤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③ 사람이 많으면 먼저 조별로 나누는 후에 전체 앞에서 발표합니다.

매주 또는 매월 한 번, 한두 시간씩 이렇게 해 봅니다.

## 116. 전임자와 후임자

전임자의 기록을 살핍니다.

전임자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원칙 방법으로 해 왔는지, 어떤 성과와 배움이 있었는지, 문제나 한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려 했는지, 어떤 강점 자원 가능성을 보았는지, 후임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잘 묻고 잘 듣습니다.

본인이 새로 구상하는 바에 관해 자문하고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임자가 이룬 성과와 남긴 자산에 대해 감사합니다.

모든 직책에 갈릴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 법이니 뒷사람이 있음을 생각하고 앞사람을 존중 배려합니다. 후임자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전임자를 대접하는 겁니다.

퇴사한 전임자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 117. 기존 기관이나 부서에 책임자로 들어간다면

1) 법인과 기관의 역사 이념 미션 비전 정관을 살펴봅니다. 법인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1년쯤은 기존 방식을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기록을 살펴봅니다.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 보고 싶은지, 잘한 점과 희망 중심으로 잘 묻고 잘 듣습니다. 미흡한 점과 대안이라면, 묻고 의논하거나 함께 공부하면서 직원 스스로 느끼고 찾고 이야기하게 돕습니다. 대안을 그 직원의 생각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 118. 어디서부터?

### 1) 누가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본인으로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도나 조직이 좌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고 조직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자는 제도나 윗사람 탓하지 않고, 기관장은 직원들 탓하지 않고, 부서는 부서원이나 관리자 탓하지 않고, 저마다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가지라도'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겁니다.

### 2) 누구와 함께 시작하면 좋을까요?

좋은 이론이라고 다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동조한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그 이론에 동조하여 해 보겠다는 사람,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 곧 의지 열정 능력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 3) 어느 사업, 어느 대상자부터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할 수 있겠다 싶은 사업부터 적용해 봅니다. 차츰 더 어려운 사업까지 감당할 마음과 힘과 여지가 생겨날 겁니다.

여러 대상자 가운데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부터 적용해 봅니다. 차츰 더 어려운 대상자까지 돌아볼 마음과 힘과 여지가 생겨날 겁니다.

이는 어려운 대상자를 잘 돕기 위한 지혜요 진정입니다.

## 119. 돕는 방법을 바꾸려 할 때

예컨대 같은 자리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이 ‘자기 방식’을 바꾸려 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바꾸려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예를 갖추어 진정으로 양해 협조를 구하면 바로 잘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잘해 보겠다고 뜻을 밝혀 진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찌 양해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 120. 조건부적 사고와 방법적론 사고

### 1) 조건부적 사고

윗사람 때문에, 직원들이 따라 주지 않아서, 규정 때문에, 평가 때문에, 예산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합니다.

윗사람이 잘 이해해 주고 직원들이 잘 따라 주면, 규정이 바뀌고 평가 제도가 달라지면, 예산과 시간이 넉넉하면... 이런저런 조건이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안 된다 못한다 합니다.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없는 자원, 얻을 수 없는 자원을 공상 합니다.

자기에게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남 탓이나 핑계, 조건 타령을 늘어놓습니다. 제 두레박줄 짧은 줄은 모르고 우물 깊다 불평합니다.

### 2) 방법론적 사고

다른 사람이나 제도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찾습니다.

자원이 있으면 선용하고 없으면 변통합니다. 산에 가면 산을 누리고 바다에 가면 바다를 누립니다.

강점과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는 데 빠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어찌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찾아냅니다.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선 자기에게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습니다.

※ 조건부적 사고와 방법론적 사고, 이 용어는 1990년대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 121. 원칙과 변통

1) 사회사업에 절대 원칙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옳은 원칙이 있을까요?

생명 존중 원칙은 어떨까요?

① 이 생명을 살리면 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저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 이쪽을 살리기 위해서 저쪽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②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게 있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존 연명시킬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존엄하게 살고 죽고 싶은 욕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끝내고 싶은 욕구에 반하여 생존 연명시킬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2) 자기가 세운 원칙을 남에게 가르치거나 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마다 생각이 있고 사정이 있음을 헤아려, 한두 번 이야기해 보고 듣지 않으면 그만두는 편이 좋을지 모릅니다. 자칫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 무례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며 나도 그 상황에선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미처 생각조차 못한 뜻이 있을지 모르고, 그 행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선인지 모릅니다.



3) 다름을 생각합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여지를 둡니다.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더하면 달라질지 모른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변통을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응하고 처지에 맞게 행하자 합니다. 이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이런 자세로 사회사업하려 합니다. 다만 이것도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

① 이런 원칙의 가치는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관용,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에 끝어다 씌운 온당치 않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만 다를 뿐이라고 하며 반성도 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되고 소통은 절로 멀어질 겁니다.

② 이쪽을 인정하면 저쪽이 부정되는 상황, 이 가치를 따르면 저 가치를 거스르게 되는 상황, 사회사업에는 이러한 갈등이 상존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저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양립할 수 없는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둘을 겸하여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절대 원칙이 있다는 주장,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다른 방식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까지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고집하지 말자’ 함도 일종의 고집입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는 말처럼 모순입니다.

④ 상대를 지나치게 인정 존중 배려하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약자를 차별하는 행위, 인권에 반하는 일,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치는 방식까지 인정하고 존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참조 : 복지**논어** ‘시중’, ‘무적무막’ | 복지**소학** ‘수연소위’ | 복지**영성** ‘원칙과 변통’

## 122. 희망

### 1) 티핑 포인트

조금씩 발전하다가 그때까지 쌓인 것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까지는 힘들고 더딜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쉽고 빠르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이내 그럴 만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럴 만한 일을 그럴 만한 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수 있게 됩니다. 문리가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사회사업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 2)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효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당사자와 둘레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속에, 복지 기능이 살아나고 이리저리 연결되면서 효용이 곱셈하듯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사회사업가들의 실천 방법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져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 3) 안정화

어떤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바꾸지 않고 계속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을 안정화라고 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방식을 경험해 보면 복지 당사자도 사회사업가도 이 방식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뜻이 깊고 실익이 무궁하며 수월하고 재미 감동까지 있으니 꾸준히 이어갈 겁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얼마쯤 변통하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 123. 고백

사회사업은 참으로 복잡다단하고 천차만별합니다.

다양한 사람 사안 상황을 겪으면서 많이 알량함을 절감합니다. 아는 것이 달라지거나 자신 없어지기도 합니다.

갈수록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